

진짜 ‘내란’은 지금부터다

진보 좌파세력 ‘대한민국 탄핵’ 스타트



이규진
총괄부회장

정녕 우리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이 말을 지금 소환하는 이유는 순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때문이다. 6·3 대선에 나선 그는 캐치프레이즈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두 말이 오버랩 되면서 소름이 돋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대한민국은 ‘가짜’였고 앞으로 경험할 나라가 ‘진짜’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국가”라는 말도 새롭게 다가온다.

얼마전 대법원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 선고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때 민주당에서 터져 나온 격한 반응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이 뭐라고...세상 바뀔 줄 몰라”라고 사법부 수장을 폄하하는 막말을 한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 후 민주당에서 쏟아진 ‘사법부 흔들기’ 행태를 보라. 대법원 개혁을 내세워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법원조직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유시민, 김어준 같은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숫자를 늘



민주당 주장 ‘내란’은 허구 ‘사법부 흔들기’는 헌법파괴 의도

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내 사람을 넣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속셈을 차체에 내비친 것이다. 이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써먹은 수법이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관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가칭 ‘법 왜곡 처벌법’을 만들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재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4심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3심제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한 발짝 더 나아가 “삼권분립 원칙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말까지 거침없이 나왔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

크’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근간인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파괴도 서슴지 않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 나라 진보좌파들은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나자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워 일거에 정국을 장악했다. 누가 ‘내란’으로 규정했는가? 헌법학자 허웅 교수는 “비상대권 권한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 ‘내란’은 허구라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에 성공하자 이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재탈취하고 대한민국과 민주헌정을 완전히 끝장내려하고 있다.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다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혁명을 하

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돌이켜 보면 주사파를 비롯한 진보좌파 세력은 이미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탄핵, 나아가 대한민국 탄핵을 시작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세력을 궤멸시키려 했고 남북정상 회담을 통한 대북 퍼주기과 굴종, 사드배치 반대를 통한 한·미동맹 훼손,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 왜곡, 광범위한 국가 통계조작, 죽창가 소환을 통한 반일 정서 고양 등등 헤아릴 수 없을만큼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벌였다. 그것도 국민의 이름으로 말이다.

나치 독일이 탄생한 것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근대 서양헌법의 아버지라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통해서였다.

<2면에 계속>

히틀러 '나치즘'은 포퓰리즘으로 탄생

<1면에 이어서>

1차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국민은 국가의 재생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같은 국민 정서를 이용해 탄생한 것이 히틀러 정권이다. 법을 통해 히틀러 정부가 탄생했고 바로 국가주의를 내세워 독일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켰다. 바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통해서다.

그 다음 동원한 것이 포퓰리즘이다. 국가통합의 방법으로 독일민족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유대민족 대학살을 이용했다. 결국 나치 독일은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전체주의로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패망의 길을 걸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고 권력을 쟁취하는 데는 유효한 수단이다. 문제는 진실을 호도한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진보 좌파들이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데는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쉽게 대중의 정서를 마비시키고 이를 정치적 지지로 이끌어 권력을 쟁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과정과 말로를 살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스티븐 레비츠키 정치학 교수는 그의 명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했다. 바로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사회규범', '무시되는 법치주의', '선출되는 독재자'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레비츠키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 "존철살인이다. 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정치 양상을 대입하면 빼닮았다."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와 손을 잡고, 포퓰리스트들이 합법적으로 국민대표로 선출되고, 선출된 독재자는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합법적 전체주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이 '내란'이라는 정치적 허구를 앞세워 '내란세력 척결'(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척결'과 빼닮았다)이라는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결국 권력 쟁취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나아가 대한민국 파괴를 통한 국가재조(再造)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총통제'를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논리가 현실에서 착착 진행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와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들)에서 나오는 낯 뜨거운 이재명 칭송 발언을 보면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아부성 발언은 시작이고, '하늘이 내린 사람' '신의 종' '부활한 예수' 등등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독재 전체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는 일찍이 북한의 3부자 세습체제의 이상숭배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내부 숙청 작업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사회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념적으로 대립되고 정치적으로 관용과 자제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필연적이다. 좌파세력 내에서 '내란세력' 15만 척결설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은 '역사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표면화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대한민국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문제적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수립은 친일 세력과 미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출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 "38선에서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고 북한의 남침 사실을 부정했다. 이는 종북세력과 주사파의 선전선동과 궤를 같이 하는 역사인식이다.

결과적으로 진짜 내란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설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입법부 장악에 이어 행정부 접수, 뒤이어 사법부 굴복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전체주의 체제로 전개될 것이다. 독재정치는 필연적이다.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상공에는 히틀러, 스탈린, 차베스, 김일성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퀴바디스 !!!

마무리시 권영섭



산악회 5월 16일 송현공원 등 우중 산책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황우연)는 5월16일 새로 옛 주한미대사관 직원 숙소 터에 조성된 '열린송현공원'과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을 둘러봤다. 원래는 안국역을 출발, 북악산(백악산)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봄비 수준이 아닌 소나기가 내려 계획을 변경했다. (사진) 회원들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참가했으며 "비를 맞으며 걷는 것도 오랜만"이라며 "추억에 남을 것 같다"며 웃기도 했다.

경복궁 경내로 고궁박물관 가는 길에는 조선시대 수문장들의 우비복장이 눈길을 끌었다. 고궁박물관에서는 어보, 복식, 가마, 고종어차 등 조선왕조 5백여 년의 왕실문화를 관람했다. 소나기 덕분에 삼계탕 맛집인 '토속촌'도 줄서지 않고 맛볼 수 있었다. 산악회는 행사 일을 격월 둘째 화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참가자 : 김사모 김성령 김윤찬 김조영 김휴선 박강지 박종서 안종우 이우진 이춘호 장옥 최귀조 황우연



만보회 무더위 속 1만보 전원 완주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5월22일 제12차 걷기 행사를 서울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산책의 명소인 '선릉'에서 가졌다. 이곳 '선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조선시대 왕릉으로 성종과 정현왕후가 잠든 곳이다. 이날 초여름 날씨의 무더위 속에서도 참석회원 모두는 만보회 창립 후 처음으로 1만보를 완주했다.

참석자는 김기원 김성녕 김윤찬 김조영 박종서 안종우 안홍렬 유진수 이우진 임상학 임한순 장 옥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정치는 생물, 단일화 물 건너가나?”

김문수 “후보 빼고 다 양보” 이준석 “끝까지 완주”



이도선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6·3 대통령선거의 최대 쟁점이자 마지막 변수는 단일화다. 처음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극 체제인 좌파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나선 우파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김문수 후보는 “한 뿌리”를 강조하며 단일화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반면,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사퇴하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역공을 폈다.

일단 1차 단일화 마감시한은 지났다. 5월 25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사퇴한 사실을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단일화가 성사되든 사퇴한 후보의 칸에 아무런 표기도 없는 투표용지로 투표하고 각 투표소에 현수막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지할 뿐이다. 지난 대선 때에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사전 투표 바로 전날 단일화에 가까스로 성공했다.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는 5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됐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단일화의 위력은 자못 크다.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2002년 노무현+정몽준 연합은 판세 역전에 성공하며 대권을 거머쥐었고, 2022년 윤석열+안철수 연합은 대통령선거에서 성공한 세 번째 단일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윤+안 단일화는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3% 포인트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는 결정적 승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2017년 대선에서는 우파가 단일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과반을 득표하고도 좌파인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했다. 대선판이야말로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딱 들어맞는 구도다.

한참 앞서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주춤 주춤 물러서는 분위기다. ‘커피 원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대 대통령 선거 3차례 단일화 성공

120원 ‘호텔경제론’ ‘거북섬 논란’ 등 잇단 말실수와 ‘비법원장 대법관 선임’ ‘대법원장 탄핵·특검 추진’ 같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역효과로 보인다. 그 덕분에 김문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이준석 후보도 10% 선을 들락거리자 단일화의 효용성은 더 커진 모양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나 이재명 후보를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의 악몽인 단일화가 또 재연될까 봐 극도로 신경 쓰는 눈치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할 것”이라고 심사를 건드리며 견제하고 나선 이유다.

단일화 적합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두 배 가까이 (45.2% 대 26.7%) 앞섰다. 물론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해서 양보한 후보의 표가 몽땅 단일화된 후보에게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우파의 표가 갈라져서는 해 볼 것도 없이 좌파에게 또 지는 판세다. 이재명 후보가 온갖 범죄에 연루돼 있고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는 우파로서는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게 지상 과제다. 대통령후보 TV 토론

에서 매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양상을 보인 것도 그래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 “후보 빼고 뭐든지 다 양보할 수 있다”며 ‘공동 정부 구성’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 등의 유인책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에게 차기 정부 총리나 당대표 등을 주겠다고 얘기도 흘러 나왔다. 우파의 단일화 요구 여론과 선거 패배 시 책임론, 사표 방지 심리 등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모습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완강하다.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김문수)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단일화가 우파의 단일 대오를 형성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지만 내부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버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강론도 분출했다. 앞서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 달라”며 이준석 후보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3자 구도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우파 유권자들이 막상 투표장에 들어서면 사표를 우려해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것이란 기대도 팽배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김문수 후보 지지도 자강론에 힘을 보탤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는 막판까지 단일화를 거부하며 국민의힘에 험한 말을 퍼붓다 돌연 ‘무조건 단일화’를 선언했다. 당시 안 후보 지지율은 지금의 이준석 후보보다 훨씬 높은 17%까지 갔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못 버리는 배경이다. 이준석 후보도 현재의 지지율로는 사표(死票)밖에 안 되고 본인이 주창하는 “이재명 총통 집권 저지”는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라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10%대 지지를 받는 후보가 40%대 지지를 받는 후보보고 단일화를 양보하라는 억지도 본심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정치는 생물이다.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완주할지, 아니면 이제 40을 갓 넘긴 젊은 나이인 만큼 차기 또는 차차기를 보고 대담한 결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

‘배신의 정치’ 보수진영 주홍글씨 되나?

‘보수우파 분열’과 ‘정권 재창출’ 실패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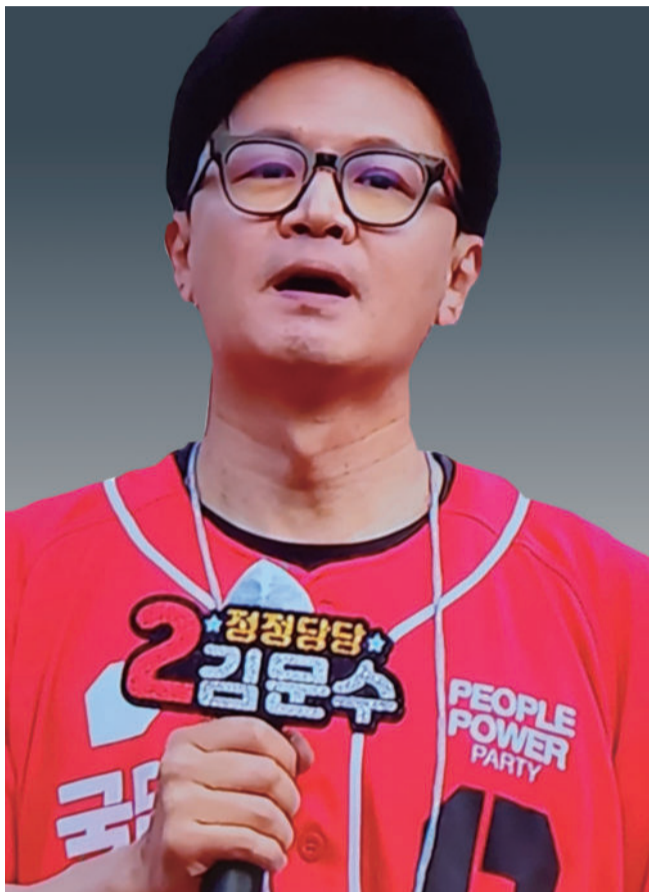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조폭 세계에서 즐겨 쓰는 ‘배신자’라는 말이 요즘 한국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배신자’ 논란은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명으로 가결(민주당 의원 39명 이탈 추정)될 당시 고조된 적이 있지만, 자당(自黨) 1호 당원이며 자기들이 후보로 뽑아 당선시킨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시킨 여당(새누리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스스로 격랑속에 빠진 악수(惡手) 중의 악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금 다시 점화되고 있다.

‘배신의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5년 여당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사사건건 정책 갈등을 빚으면서 유 전 대표를 겨냥했던 말이다. 유 전 의원은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정치 낭인’의 길을 걷고 있다.

새누리당을 승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친한계 인사들이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면서 주홍글씨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계엄 이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에 동조, 윤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가능케 한 장본인이며 결국 당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당과 후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려 당을 격랑 속으로 밀어 넣은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배신의 정치’란 말은 박 전 대통령 이후 ‘탄핵 트라우마’, ‘보수우파 분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자 ‘반역의 정치’, ‘정권 재창출 실패’를 상징하기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결의안은 2024년 12월 14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



한동훈은 과연 ‘배신의 아이콘’인가?

기원전 44년, 로마의 권력자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 쓰러지며 남긴 이 말은 정치적 배신을 상징하는 말로 2000년 이상을 이어왔다.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사람은 60여 명인데 브루투스와 함께 14명이 23차례나 칼로 찔려 죽었다. 카이사르의 정부(애인) 세르빌리아의 아들로 카이사르의 측근이자 양자로 총애를 받던 브루투스는 로마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결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역사는 그를 ‘배신자’로 기록했다.

예수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인 가롯 유다는 성경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려진다. 그는 적들에게 스승인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긴 사람으로 기록돼 있다. ‘반석(바위)’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는 의리와 배신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배신자’의 멍에를 겨우 벗

국민의힘 친한계,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적 역할 유승민 전 의원 낙인 찍혀 ‘정치 낭인의 길’

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대통령 탄핵안에는 야 6당 참석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최소 12명이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에 ‘야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명 중 국회 탄핵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스스로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현재 국민의힘 탈당, 민주당 소속), 김재범, 진중오, 한지아 등 7명이다. 하지만 현재에 제출한 탄핵반대 청원서에 서명 안한 국민의힘 의원 배신자는 이들 7명 외에 25명이 더 있으므로 실제 탄핵 찬성 의원(배신자)은 32명이 되는 셈이다.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면서 <윤 전대통령 탈당촉구, 탈당 거부시 출당 조치해야>라는 성명을 발표한 사람은 김근식, 김영우, 김영주, 김종혁, 김준호, 김혜란, 류제하, 박상수, 서정현, 오신환, 유의동, 윤용근, 이재영, 이종철, 이창근, 이현웅, 조수연, 최기식, 최돈익,

호준석, 황명주 등 21명이다.

또한 한겨레신문 전화 전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밝힌 원외 당협위원장은 김윤, 이상민, 장석환, 장진영, 최원식, 최진학, 함운경 등 7명이다.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정광재, 송영훈(이상 한동훈 대표 재임 시 당대변인)등 3명은 TV 패널로 출연, 탄핵 선동을 일삼은 배신자로 꼽혔다.

이밖에 탄핵지지 또는 동조 발언을 한 지자체 장 등 고위 인사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장 등 9명을 들 수 있다. 배신자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자>로 국어사전에 기술돼 있다. 유사한 말로 ‘반역자’, ‘변절자’가 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Et tu, Brute?)”

어났다.

우리 역사속 배신자들로는 고조선의 위만(衛滿), 고구려 8대 신대왕의 장남인 고발기(高拔奇), 신라의 진흥왕, 고구려 연개소문의 맏아들이며 제2대 막리지인 연남생(淵南生), 조선말 이완용(李完用) 등 을사오적을 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아우’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적’에게 팔아넘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롯 유다와 같은 부류들이라고 하면 지난 친 말일까. 지금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12·3계엄의 위헌 여부, 그리고 계엄의 내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은 고착될 수도 있고 벗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저성장 수렁’ 한국경제…내수 활성화 시급

경제 포커스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가계 부채도 ‘화약고’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헤매고 있다. 지난해 2분기(-0.2%)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0.2% 역성장,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저성장을 나타내며 성장의 동력이 멈춰있는 모양새다. 일본이 겪었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올해 1분기, 주요 19개국 중 최하위 성장률 기록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월의 공식 전망치인 0.2%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 ‘깜짝 성장’을 기록한 후 2분기엔 -0.2%로 곤두박질쳤다. 저성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분기와 4분기에도 모두 0.1%에 그치는 등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0.2% 성장은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글로벌 주요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 19개국 중 18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이고, 비(非)OECD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포함돼 있다. 1분기 성장률 1위는 아일랜드(3.2%)였고, 중국(1.2%), 인도네시아(1.1%)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GDP)가 비슷한 스페인도 0.67%의 성장률로 4위에 올랐다.

최근 일고 있는 이러한 저성장 현상은 전례없는 장기 침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를 겪더라도 통상 1~2분기 지나면 곧바로 튀어 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후인 1월에는 1.8%로 0.4%포인트나 낮췄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0.7% 역성장 이후 처음 맞아보는 처참한 경제 현상이 될 것이다.

붓물처럼 쏟아지는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경제 침체 예측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또 다른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해 2030년대에는 0.7%, 2040년대에는 0.1% 수준까지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모습.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기구의 한국경제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무려 1%포인트나 낮춘 1.0%로 예측했다.

불과 3개월 만에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IMF는 또한 내년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1%에서 0.7%포인트 낮췄다. IMF는 이러한 하

이런 가운데 미국 월가의 일부 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고 심할 경우 아예 자금 조달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부동산-주가 급락, ‘일본 잃어버린 30년’ 반면 교사 소비-투자 촉진 정책 수립…수출시장 다변화

향 조정 배경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글로벌 관세 전쟁에 두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이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OECD도 우리나라가 낮은 경제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조정 폭 중 하나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반증이다.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은행 등 국제투자은행(IB)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들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3월말 1.4%에서 4월말 0.8%로 한 달 만에 0.6%포인트나 하락했다.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는 화약고…소비·투자 촉진책 등 마련 시급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처럼 저성장 늪에 빠진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올해 1분기 해외부문은 0.3%포인트 증가했으나 내수는 0.6%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 중에서도 건설투자가 3.2%, 설비투자 2.1%, 그리고 민간소비가 0.1% 각각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지출을 전 분기 대비 0.1% 축소했다. 경제에 충격이 올 때 정부가 완충활동을 하는 건 상식적인 일인데도 거꾸로 행동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내수 부진의 주범으로 거대한 가계부채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27조 원에 달했다. 가계대출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약 1124조 원)이다. 가계가 집을 사느라 막대한 빚을 졌다는 얘기다. 한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국민들에게 권유한 정부의 ‘무지 행정’이 이같은 ‘대참사’를 불러온 셈이다. 국내 정

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폭탄관세’ 예고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위축은 성장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성장 부진의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비중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올해 69.5%로 70%를 밑돈 뒤 2050년 51.9%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20.3%에서 2050년 40.1%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은 1980년 말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자산 버블이 발생했고, 자산 버블을 견디다 못해 1991년 초를 기점으로 장기간 부동산과 주가가 모두 급락했다. 이것이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

린 30년’이다. 이는 자산 버블을 방지하면 장기적인 경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빼박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지 않고, 저성장 늪에서 빠져 나오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수 시장 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도 필수적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 개척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로봇 등 고부가치 산업과 첨단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 확충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구조 개혁을 차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특파원 수첩 런던 ②

재벌그룹 총수들 고급 술집서 ‘술 파티’

“쏘대통령, 술집 방문” 국내언론 ‘오보’에 경호실 발칵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런던을 방문한 첫날, 주영 한국 대사관저에서 갑자기 전기가 꺼져 암흑천지가 되고, 경호실장이 권총을 꺼내들어 “짹짹 마”를 외치고 있던 그날 저녁, 대사관저에서 모두가 혼비백산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전회 참조) 런던 시내 한복판, 고급 술집에서는 질펀한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리젠트 스트리트(Regent St.)의 뒷골목의 술집, ‘가스 라이트’(Gas Light). 리젠트 스트리트는 세계 최고의 명품 가게들이 즐비한 관광 명소이고 그 뒷골목 세인트 제임스(St. James)에 있는 가스 라이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젠틀맨스 클럽. 테이블 댄스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굴지의 살롱이다. 세계의 미녀들이 미니 스커트 차림으로 봉사하는 곳. 넥타이에 정장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허되는 격조 높은 곳이다.

재벌 총수들 고급 술 집에서 여독 풀어

대통령을 수행하고 온 한국의 경제인들이 여독을 풀기 위해 모인 것이다. 대통령의 해외방문에는 으레 그렇듯이 이번 방문에도 무려 34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협력사절단이 수행했다. 굴지의 국내기업들은 모두 망라되었다. 삼성 이은택, 현대 정세영, 선경 최종건, 두산 박용곤, 코오롱 이동찬, 대농 박용학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다. 고국의 재벌그룹 총수들이 다 모였으니 런던주재 지사장들이 오죽이나 좋은 곳을 선정했을까? 본국에서 자기 그룹 총수가 찾아 왔으니 주재 상사원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것, 모두가 가스 라이트 주변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술집 안에서 취기가 한창 돌 무렵 영국인 종업원으로부터 마이크로

“프레지던트 정”을 찾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현



철의 여인 영국 대처 수상을 만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

대자동차의 정세영사장이 카운터로 나가 전화를 받고 돌아가서 술잔을 계속 기울였다.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다방이나 술집 등에서 손님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종업원이

졌다. “땡전 뉴스”가 보편화 되어있던 시절 전두환 런던 방문은 영국 신문에 보도되지 않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튿날 아침

취재기자, 정세영 사장을 쏘대통령 착각해 보도 수행원들 개별행동 금지령...英언론들 무관심

마이크로 손님을 찾아 연결해주던 시절이다.

나는 당시 전 대통령과 같은 비행기로 동승, 취재하러온, 청와대 담당 동아일보 최규철 기자에게 런던의 밤 문화를 안내했다. 기왕에 한턱 쏘는 김에 마음 맞는 친구들을 함께 부르라고 인심을 썼다. 수행기자 7~8명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같은 값이면 재벌 총수들이 들어가 있는 그 술집에 가려 했다. 그러나 일행 중엔 넥타이를 맨 친구가 거의 없었다. 취재의 긴장을 풀고 밤거리를 즐기려 나온 기자들이 정장을 할 필요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당연히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한 블록 건너 유명한 환락가 피카딜리 서커스의 어느 뒷골목, 짹짹 미니 스커트 아가씨가 줄서 있는 살롱으로 들어갔다. 알박한 내 호주머니 사정으로는 그 술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런던주재 한국 상사 지점장에게 계산을 부탁했다. 그리고는 각자 뿔뿔이 헤어

일어나 보니 한 조간신문에 엉뚱하지 만 엄청난(?) 기사가 보도되었다.

“영국을 방문한 한국의 전두환대통령, 술집 여인들과 시시덕거리다.” 비록 미리 예약해두었던 호텔을 피해 대사관저에서 하룻밤을 보내긴 했지만 대통령이 어젯밤에 아무도 모르게 술집에 갔단 말인가? 청와대는 물론 모든 수행원, 심지어는 취재 기자들에게까지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 오보였다. 아무리 선정성 가십거리를 잘 취급하는 타블로이드판 엘로 페이퍼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뒤늦게 알고 보니 그 시간, 그 술집, 가스 라이트에는 마침 그 신문사 기자가 우연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전 대통령의 영국 도착 기사가 영국신문에는 보도된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전 대통령의 방문 사실 자체야 모를 리 없던 기자가 보기에 “프레지던트 정”을 찾는 전화에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받지 않는가. 사진으로

만 전 대통령의 얼굴을 보아온 그 기자에게는 정세영사장이 영락없이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환칠한 이마 면적도 비슷한데다가 영국인의 발음으로 “정”과 “전”의 구별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프레지던트”는 “사장” 말고도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는가. 대사관이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양윤길 공보관이 해당 신문사를 찾아 해명하고 사과를 받은 뒤 정정보도를 하게 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이 일이 있던 다음날부터 모든 수행원들에게는 공식 행사 이외에 개별 행동 금지령이 떨어졌었다고 한다.

전두환의 영국 방문사실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그럴만한 가치가 물론 없기 때문이다. 런던에는 하루에도 수 없는 외국 수비들이 방문한다. 가까운 유럽 각국에서는 물론 인도, 파키스탄, 호주, 캐나다, 케냐, 탄자니아 등 산하 56개 영(英)연

방(Commonwealth) 국가 지도자들의 방문이 빈번하다. 대개는 실무방문(Working Visit).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전두환 대통령의 방문도 그랬다.

한국에서는 소위 “땡전 뉴스”가 보편화되어 있던 때. 저녁 9시 시보가 9시를 울리면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TV뉴스가 맨 처음 튀어나오고 도하 각 신문의 1면 톱을 장식하던 때이다. BBC 방송에서 본 특파원에게 전두환의 영국 방문을 앞두고 서울의 분위기를 전해달라고 방송출연을 요청하였으나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공중파에 나가서 비판하기도, 그렇다고 칭송할 수는 더 할 수 없는 노릇, 그냥 사양하고 말았다.

필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도 당시에는 기사로 쓸 수도 없었고, 써서 본사에 송고해도 신문에 기사가 되지 않던 암흑한 시대였다. ☐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②9

“한미동맹 선결...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

6·25의 달 6월은 이승만의 천재적 역사창조 능력이 총체적으로 폭발한 달이다.

셋째 스탈린의 공산화 침략전쟁을 ‘남북통일전쟁’으로 역전, 유엔군을 ‘북진통일연합군’으로 규정했고, 둘째 미국의 일방적 휴전을 결사반대하며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함으로써 휴전

모드를 반전시키고, 셋째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미국을 굴복시켜 통일을 위한 안보동맹 협상에 끌어들이는 일들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강대국 미국의 전쟁주도권을 빼앗아 한국이 통일전쟁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말이다. 국제정세 해독력이 탁월한 글로벌 전략가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國父
이승만

30) 반공포로 석방 드라마

◆6월18일은 반공포로 석방 72주년, 동서 양세계를 한순간에 경악과 충격에 묶어버린 그 한밤의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되었던가. 그것은 단순히 ‘포로석방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운명을 건 ‘1대100’의 건곤일척 ‘1인전’이다.

1953년 3월5일 스탈린이 죽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판문점 휴전협상은 스탈린이 고집한 포로 일괄송환문제에서 벗어나 급물살을 탄다. 미국은 얼씨구나 하고 공산측의 요구에 따라 반공포로도 일괄송환하려 덤빈다. 이에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휴전반대 경고장을 계속 날린다.

“휴전 수락 강압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형선고를 받으라는 것(death sentence without protest)과 같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이러면서 한·동맹체결을 촉구한다.

“한·미방위조약부터 맺자. 이것은 휴전과 전혀 별개로 미국의 한국방위 의무이다” 즉, 1992년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을 버리고 일본에 한국을 넘겨준 미국의 배신을 한·미동맹으로 사죄보상하라는 요구였다. 미국은 경제원조를 내세워, 휴전을 수락하면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이승만을 달래려 한다. 판문점에서 ‘포로교환 완전합의’ 협정 조인 발표가 나왔다.

이승만은 칼을 뽑았다. “한국군 전 작권 이양을 철회하고 유엔군서 빼내 단독북진 통일하겠다” 6월7일엔 전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에서 교육중인 국군장교 전원 귀국명령도 발한다. 변영태 총리서리는 “전민족은 쫓겨가라”는 특별담화도 발표하였다.

당황한 미국은 이승만을 극비에 방미 초청한다. 이승만은 “바빠서 못간다. 델레스가 오라”고 했다. 델레스는 “국무차관보 로버트슨을 대통령특사로 보내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이승만이 OK한 이날이 6월 17일이다. 이 빈틈을 D-Day로 잡았던 것이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로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을 부른다. 진작부터 준비해온 비밀작전 D-Day를



▲1953년 6월18일 석방된 반공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11일에서 18일로 바꿨다. “거사하라. 가(可) 만(晚)” 결재 사인이 떨어졌다.

음력 그믐 칠혹같은 새벽2시, 전국 포로수용소에서 봉화 불이 검은 하늘에 솟아오른다.

반공포로들을 날마다 인민재판·집

도날에 턱을 베이고, “미국은 뭐하느냐. 이번엔 이승만을 없애라”며 펄펄 뛰며 소리친다. 백악관에선 아이젠하워가 망연자실이다. “공산군보다 더 무서운 적이 이승만이다” 침통한 대통령 옆에서 델레스가 투덜거린다.

풀어줬어야 마땅할 터인데 너무 늦었다. 유엔군사령관이나 관계국들과 사전협의를 안한 까닭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터이다...각 도지사 와 민중들이 아무쪼록 우리 반공애국동포들을 잘 보호해 주리라 믿는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휴전협상 급물살 6월 18일 거제도 등 반공포로 2만7천명 석방

단폭행·학살을 일삼던 공산군 포로들이 깊이 잠든 광대한 거제포로수용소, 검은 그림자들이 다람쥐처럼 미리 약속한 반공포로들을 깨워 일제히 탈출한다.

놀라 뛰어나온 미군경비병들을 국군헌병들이 제압한다. 어느 곳에선 담배 피우자며 유인하여 결박, 무장해제하고, 어느 곳에선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려 무력화시켰다.

“우리동포들을 보호하자” 경찰은 내무부가 준비한 은신처로 포로들을 데려가 민간복장으로 갈아입히고 음식을 제공하였고 주민들이 물려와 열싸안고 환대한다.

이렇게 해방된 반공포로들이 2만 7천여명, 전세계가 놀라 아우성을 친다.

런던에선 세수하던 처칠이 놀라 면

“등뒤에서 칼을 찔렀다” 중공 북경의 반응은 의외로 잠잠하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중공군 반공포로로는 한명도 석방시키지 말라고 명령해두었기 때문이다. 이점을 알아본 델레스는 새삼 이승만에게 감탄하였다. 마오쩌둥도 이윽고 고백한다, “이승만이 미국의 꼭두각시인 줄 알았더니 백악관보다 더 두려운 적이로구나...”이렇게 하여 이승만의 ‘벼랑끝 곡예’는 휴전반대가 허풍이 아니었음은 물론, 한국이 미국의 인형이 아님을 세계에 입증하며 글로벌 지도자로 우뚝 섰다.

◆다음날 이승만은 “전세계 인류와 참전 우방국들을 향하여”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한인 반공포로들을 석방하라고 명령하였다. 제네바 협정과 인권정신에 따라 진작

그 무렵 백악관 비상대책회의가 갈광질광 심각하다. 흥분한 강경파들은 이번엔야말로 주저 말고 ‘이승만제거작전’(Operation Ever-Reay)을 발동하자고 덤빈다. 그때 로버트슨이 가로막고 나서 말했다. “침략자와 싸우는 우리가 침략자보다 더한 침략자가 되지는 것이냐?”

반공포로석방 1주일 후 중앙청 광장에서는 ‘명심하자 6·25! 전취하자 통일성업!’ 6·25발발 3주년 반공통일 쫓겨가대회 열렸다. 그날 저녁 여의도 공항에 미군기가 착륙한다. 가방 하나를 들고 내린 사람은 바로 로버트슨, 간단한 성명을 발표한 그는 이튿날 아침 경무대로 들어갈 것이다. 마침내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과 담판 자리를 만들어냈다. <계속> ㉮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뉴데일리 회장)

‘의회 쿠데타’로 무너진 삼권분립

민주헌정과 체제전복 노재봉 교수 1주기 세미나

지난 5월15일 스승의날 서울 관철동 교원투어 빌딩에서는 일반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제정치학계의 큰 별(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이셨던 혜사(憲史) 노재봉 전 국무총리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작은 학술회의가 열렸다. 그의 제자였던 송의달 교수, 조성환 교수, 서명구 박사, 유광호 회장, 송준호 대표, 주동식 대표 등 후학들이 “대한민국 민주헌정과 체제전복 세력들”이란 평소 노재봉 교수가 천착했던 담론을 가지고 12·3 계엄과 6·3 대선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최근의 엄중한 정세에 대해 촘촘살인했다. 제자들에 따르면 노교수는 지난해 4월23일 영면 직전 “기적의 대한민국이 자칫 멈출까봐 안타깝다. 체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절박한 말씀을 남겼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몇 편을 소개한다. (편집자 註)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그 직후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과정과 대통령 파면 결정은 현행 87년 6공화국 헌법이 잉태했던 결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 헌법재판소 이 3자의 권력균형이 과연 어떠한지 하는 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필자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계엄해제 당일 탄핵소추 발의안을 내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란방조죄’로 위협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다.

계엄선포 전부터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실체가 없는 ‘내란죄’ 선동으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수사기관들과 일부 법원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불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마저 불법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폭거는 ‘정상적인 헌법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의 형식을 빌린 의회의 연성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바로 ‘의회의 쿠데타’였다.

처음에는 이 사태를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단순한 권력투쟁으로 보았다. 서로가 가진 헌법상의 권한을 극단으로 끌어올려 정치 투쟁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싸움



헌법재판소가 두 헌법기관위에 군림해

은 정치 내전이며 체제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파기할 것이냐의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1933년 독일의 나치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독재체제로 나아간 것은 총칼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법률로써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질서를 뒤엎은 것이었다.

필자는 지난 3월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의견서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정치적 행성을 헌법재판소가 쉽게 해서는 안되는 헌법적 이유 일곱가지를 제시한 뒤, 탄핵소추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4월4일 8인 전원 일치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을 고통스럽게 읽으면서 느낀 것은 87년 6공화국 헌법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괴물’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자의 지위를 스스로 찬탈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한 법복귀

족(헌법재판관) 8명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의회의 쿠데타’를 완성시키는 위험한 정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세력균형은 완전히 깨졌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두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권력 지형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바로 삼권분립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사법권력에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졌던 ‘절제의 미덕’, 즉 ‘사법자제(司法自制)의 원리’는 우리 헌법에서 사라졌다. 이제는 국민이 삼권분립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떻게 할지, 괴물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이대로 방치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 상호 간에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탄핵소추’(제65조)이다.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

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유로는 국회내 특정세력이 다수의 표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떤 경우라도 탄핵소추를 가능케 한다. 특히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이라도 직무와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정부 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지만 이는 잘못된 분석이고 평가이다. 오히려 ‘제왕적 국회’라고 보아야 맞다. 향후에 헌법 개정을 한다면 이 탄핵 조항을 반드시 고쳐서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균형을 새로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적 사법화(司法化)’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헌법은 사생대회(寫生大會)에서 각자가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려 넣을 수 있는 도화지(圖畫紙)가 아니다. 특정 정파의 이념과 가치를 담는 그릇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는 국가의 설계도여야 한다.

‘내적 갈등’ 대한민국은 존속될 것인가

87체제의 헌정위기와 6·3 대선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오늘날 대한민국의 내적 갈등은 내전(內戰)이라고 불릴 정도로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심화, 전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바로 1987 체제의 등장 이후 좌파 어젠다가 전면화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87체제의 본질은 대중의 정치참여 욕구가 폭발한 것이다. 이런 대중적 욕구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한 주역이 좌파연합(호남+주사파)이었다.

좌파연합은 87체제의 정치적 승자였지만 87년 대선의 패배로 현실적인 정권은 장악하지 못했다. 정치적 승리와 제도권 권력의 패배라는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좌파연합이 선택한 전략이 사회 각 분야, 즉 시민단체, 노조, 언론, 문화예술계, 학계 등 풀뿌리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확보한 인력과 이념적 어젠다를 제도권

정치 에이전트인 민주당에 파견했다. 문제는 좌파 권력이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즉 좌파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기업, 반시장, 반자유, 반법치, 반미국 등이며 최종적으로 반대대한민국으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을 설계한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업활동의 자유, 개인 소유권 보장, 한·미·일 우호, 반공 등의 가치와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이다.

이런 대립과 충돌은 좌파가 현실 권력을 장악한다 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 정체성과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좌파가 현실 권력을 장악하고도 소수자 의식,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체

성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말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나 이재명이 내세우는 “진짜 대한민국”이 모두 표현만 다를뿐 앞으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로 국가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6·3 대선이 던져주는 위기감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6·3 대선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지해 왔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

좌파연합이 사회 각 분야 풀뿌리 권력 장악

제의 등기는 우파의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 소유권은 좌파가 행사하는 것이다.

좌파가 목적하는 것은 자신들의 가치나 도그마로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것, 즉 레짐체인지(체제 교체)를 달

국 체제가 그대로 존속되느냐, 아니면 좌파가 노리는 대한민국헌정체제의 깃발을 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느냐의 갈림길인 것이다. 바로 이런 엄중한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민주헌정과 체제전복

노재봉 교수 1주기 세미나

탄핵은 체제전쟁의 수단이었다

탄핵의 정치학: 적법성과 정통성



서명구
한국자유회의

지난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던졌다. 현재의 탄핵심판은 바로 민주헌정의 정통성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국민주권 원리를 철저히 왜곡하여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입법부(국회의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국민 여론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반민주헌정 논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력분립을 생명으로 하는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사라진 것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공식적으로 반법치주의를 천명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보통 삼권분립으로 통칭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적용해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심판은 무리한 결정이었다. 무

종합적으로 보건대 계엄이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명치 못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상계엄 발동은 삼권분립의 복원과 민주헌정 수호 차원에서 결정된 통치행위라는 점을 적극 감안했어야 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를 주도한 세력은 3분의 2에 육박하는 국회내 절대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윤석열 정

받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파기환송된 선거법위반 사건이 고등법원의 재판연기 결정 후 모든 재판 절차가 줄줄이 연기되는 등 사실상 해소된 상태이다. 게다가 대선 전에 아예 사법리스크 자체를 소멸시키려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면소 조치하는 기상천외한 1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의 온갖 반민주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헌정주의-법치주의 사라져

엇보다 입법부(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 국회 권한을 넘어서는 마구잡이 예산 삭감, 입법 폭주 등은 권력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마땅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부재 등 국회의 폭주에 대한 실질적 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비상계엄 발동을 불러왔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

부 출범 이후 처음부터 집요한 정권 흔들기와 30차례에 이르는 탄핵소추를 하는 등 각종 공격을 파상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권을 재탈취해서 대한민국과 민주헌정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싸움, 그러니까 체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12개 각종 혐의로 5개 재판을

결국 이들 반민주세력은 허구의 ‘국민’을 앞세워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그리고 법치주의 등 민주헌정 원리를 왜곡, 부정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부정하고 ‘이제까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체제전복 음모를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자유, 민주, 공화의 기틀 위에 세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의 나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선대들이 세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을 모금한 지 5개월, 오직 국민의 손으로만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고사리손의 꼬마 기부자부터 대통령까지 각계각층의 국민께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념관을 적기에 건립하여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및 발전사의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이 과업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습니다.

모금 계좌 (예금주: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농협	301-0334-1185-31	국민	815601-04-182916
우리	1005-104-553918	하나	109-910035-23404
신한	100-036-637911	새마을	9002-2034-6284-4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김항식
 고문 | 박지만, 노재헌, 김현철, 김홍업
 추진위원 | 김군기, 김길자, 김명섭, 김석규, 박유재, 복거일, 손병두, 신영균, 신철식, 안병훈, 이영일, 이영훈, 이운생, 이인호, 이장호, 이진만, 이창진, 인보길, 정용상, 조보현, 주대환, 한용외, 한화갑, 황성욱



#<건국전쟁>의 감동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액 100억 돌파!



*홈페이지 후원 환영 www.이승만재단.com
 네이버, 구글에서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을 검색해 주세요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유일한 공식 모금 기관입니다
 *후원자 예우 등을 위해 후원하신 후 이메일로 (donation@rheesyngmanfoundation.or.kr)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77.0391

예술인 그 삶과 예술혼 ㉔

작가주의 리얼리즘 유현목 감독 ①

‘오발탄’ 등 문예물 영화 전성시대 열어

세월이 흘러도 유현목 감독의 작가주의 리얼리즘 영화혼은 한국영화에서 계속 살아있어야 한다. 요즘처럼 2시간 동안 칼질과 피 튀기는 폭력만 난무하는 영화가 1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시대이기에 유현목의 리얼리즘 작가주의 예술영화가 그립고, 더욱 그립다. 유현목 감독은 문예물, 코미디, 종교물, 역사물 등 50여 편의 영화를 감독하면서 일관되게 영화적 탐구를 해왔다. 때로는 나이를 넘어서 실험영화까지 만들었다.

유현목은 1956년 ‘교차로’로 감독에 데뷔한 후 1958년부터 1964년 한국영화 중흥기에 그의 생애 중 대표작이라고 꼽을 만한 영화를 만들어 한국영화의 품격을 높였다. 1958년 ‘인생차압’, 1961년 ‘오발탄’, 1964년 ‘잉여여간’이다. 그 이후에도 1965년 ‘순교자’, 1967년 한국영화 최초의 옴니버스 ‘한’ ‘막차로 온 손님들’, 1968년 ‘카인의 후예’, 1969년 ‘수학여행’ ‘나도 인간이 되련다’, 1970년 ‘두 여보’, 1971년 ‘분례기’, 1975년 ‘불꽃’, 1977년 ‘문’, 1979년 ‘장마’, 1980년 ‘사람의 아들’을 감독해 김수용 감독과 함께 문예물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외세에 의한 조국분단, 동족간의 전쟁, 독재, 가난 등을 몸소 체험한 유현목의 영상은 한국의 전후파 문학과 자연스럽게 접목된다. 유현목 영상의 예술적 리얼리즘 성과는 전후문학과 융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오영진, 황순원, 이범선, 손창섭을 거쳐 선우휘, 김은국으로 이어졌다.

‘인생차압’은 오영진이 자신의 희곡 ‘이중생 각하’를 시나리오로 개작한 작품인데 카리스마가 강한 부자 가부장(김승호)을 중심으로 사람은 좋지만 쫓대가 없는 의사 사위(박암)와 큰 딸(유계선), 자살극을 유도한 악덕 변호사(박상익), 국회의원(서월영), 비서(이민), 제대군인 장남(장민호) 등 1950년대 말 사회상을 대표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시대를 신랄하게 풍자한다. 돈 많은 기회주의 사장 이중생은 이 세상에 권력과 금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생활태도를 가진 사업가다. 그래서 사기·횡령·탈세 등을 자행하다 마침내 법망에 걸리게 되자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는 자살극을 꾸민다.

이 영화는 코미디 형식을 빌린 풍자극이지만 유 감독은 비감이 전신



유현목 감독

을 전류처럼 흐를만큼 냉정한 시선으로 시대상을 고발한다. 리얼리즘이 전 편을 꿰뚫고 있다. 이 사장은 탈법과 불법 행위가 탄로 나자 상속법 권위자인 변호사와 협의하여 물욕이 없는 의사 사위에게 가짜 사망진단서를

쓰게 하고 재산 전부를 의사 사위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긴다. 사랑대청에 빈소가 차려지고 문상객이 들이닥친다.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본 살아있는 이중생은 틈만 나면 관이 안치된 뒷방 동그랗게 뚫린 작은 구멍으로 엿보다가 대청마루로 나와 일일이 참견하는 바람에 귀신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상 온 국회의원이 “자살로 인한 이 사장의 유산은 상속자가 아니라 국고에 환수된다”고 말하자 죽은 이 사장은 사위를 걸어 재산 상속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들통 나 계획은 처참한 실패로 끝난다.

이 영화의 내용은 1950년대보다 요즘의 시대상을 더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재벌들의 위장 상속이 요즘도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지 않은가. 67년 전 유 감독이 연출한 ‘인생차압’의 메시지는 오늘의 시대상에도 전달되고 있다. ‘인생차압’은 부일영화상(부산일보 주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김승호), 남우조연상(최남현), 여우조연상(황정순), 음악상(한상기)을 수상했고 제6회 아시아영화제에 출품했다.



오발탄

1961년 유현목이 감독한 ‘오발탄’은 영화관계자들이 ‘한국영화 베스트 1위’로 선정한 작품이다. 이범선의 원

의 ‘이반의 어린 시절’과 수상을 놓고 최종 격돌했다. 리얼리즘의 절정을 이룬 영화로 평가받았지만 흥행운은 따르지 않았다.

‘오발탄’은 암울한 시대상의 사실적 묘사와 함께 사회고발적인 비판의식이 담긴 작품으로 해방촌에 살고 있는 월남 피란민 가족의 비참한 생활을 시대적인 정신으로 승화시켰다. 정신이상이 된 어머니와 영양실조에 걸린 만삭의 아내, 사고

만 연발하는 남동생과 양공주가 된 여동생, 고무신을 사달라고 매일 보채는 자식, 이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박봉에 겨우 살

황순원·선우휘 등 한국의 전후파 문학과 융합 영화인들 ‘한국영화’ 베스트 1위로 ‘오발탄’ 선정

작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암울했던 시대의 우리 자화상이다. 남북분단으로 인한 실랑민이기도 한 유 감독은 6·25전쟁 이후의 황폐한 현실을 ‘오발탄’에서 폐쇄적인 분열성으로 표현한다. 자유당 정권 말기의 암울했던 시대상을 리얼리즘으로 보여준 이 영화는 촬영기간만 13개월이 걸렸다. 영화내용이 어두운 시대상을 담았기 때문에 지방행행사들이 입질을 하지 않아 김진규 최무룡 등 배우들이 거의 노 개런티로 출연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제작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극장개봉 중 당국으로부터 상영허가 취소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그 바람에 이 영화는 개봉을 세 번이나 해야만 했다.

첫 개봉은 1961년 4월 13일 서울 광화문 국제극장에서 했지만 관객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5·16군사혁명 이후 두 번째 개봉 때는 상영 중 문교부(당시 영화 주관 부처)로부터 ‘상영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필름을 내렸다. 세 번째는 제 7회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 출품된 1963년이였다. ‘오발탄’은 이 영화제에서 타르코프스키

아가는 가장인 계리사 가장(김진규)은 쥐꼬리만한 월급에 비해 쓸 데는 너무 많았다.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 우선 급한대로 치과에 들어서 충치부터 뽑는다. 그리곤 딸 고무신 한 켤레를 산다. 정신이상의 어머니(노재신)는 시도 때도 없이 “가자”를 부르짖고, 남동생(최무룡)은 은행을 털고, 여동생은 대낮에 미군과 함께 지프를 타고 도심을 지난다. 가장은 남은 돈으로 술을 마신다. 취한 가장은 집을 두고도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다. 어머니가 외치는 “가자”는 영화 ‘오발탄’의 상징적인 화두로 두고 온 고향일 수 있고, 삶의 이상향일 수도 있다.

술에 취하니 갈 곳이 없는 샐러리맨 가장은 1950년대 말 한국사회의 인간상이요, 영화는 그 시대의 극명한 리얼리즘의 진수다.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감추어서는 안되는 한국사회의 상처를 유현목은 냉철한 눈으로 사실대로 담았다. 여기엔 보탬도 뺐도 없다. 사실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이다. ☞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문무겸전’ 이순신 장군은 소통의 달인

대한언론인회 ‘충무공의 소통 리더십’ 세미나 주제 발표문

올해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탄신 480주년을 맞는 해이다. 요즘처럼 나라가 갈라져 혼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충무공의 소통과 통합의 지도력이 우리를 꾸짖는 것 같아 더욱 흥미롭게 된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5월28일 아산 현충사를 찾아 참배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소통 리더십”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충무공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겼다. 다음은 주제발표문 요약내용이다. (편집자註)



김동철
편집위원/이순신 인성 리더십포럼 대표

‘문무겸전’의 이순신 장군(1545~1598)은 소통의 달인이었다. 그는 소통의 중심에 서서 상하좌우의 소통 채널을 십분 활용했다. 사통팔달 이어진 공격, 사적인 언로(言路)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전략으로 승화되어 23전 23승 불멸의 신화를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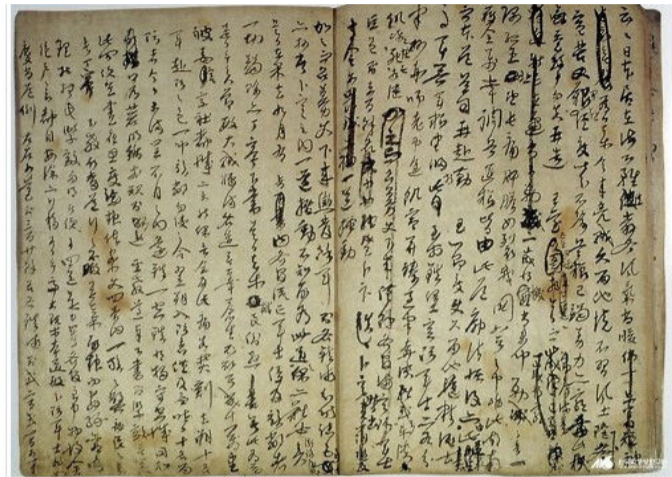
이순신 장군의 주특기는 탐망(探望) 전술이었다.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망선을 띄웠고 탐망꾼의 정보를 활용했고, 각처의 피란민들로부터 생생한 적정을 보고받았다. 탐망은 현대판 레이다 역할인데, 이를 작동시켜 적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이기는 환경을 만든 뒤 대적하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의 환경을 만들었다. 게다가 전투지역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각종 총통의 화력만큼이나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이 선승구전의 탐망 전략은 문무겸전한 이순신 장군에게 상하, 전후좌우 여러 채널을 통한 정보력을 수집하는데 활용되었다.

병가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 불태(百戰不殆)를 체화한 장군은 최초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즉 최고 정보관리자였다. 특히 투항한 일본군인 항왜(降倭)를 자신의 지휘선에 태워서 적정을 살피게 했다. 또 포로로 잡은 일본군을 직접 심문해 귀중한 정보를 얻어냈다. 이런 적군의 동태와 전투 현황 보고서인 장계를 국왕에 올림으로써 조정과 원활한 상호 소통을 강화했다.

정보수집에 탁월한 그의 능력은 곧 4개의 소통 채널을 효율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실현되었다. 7년간 계속된

전쟁통에도 공사다망한 상황을 일기에 남김으로써 세상과 소통했고, 위로는 국왕과 조정, 비변사 관리들에게 장계를 올려 일본군의 동태 등 현황과 23전 23승의 전과(戰果)를 보고했다. 아래로는 불치하문(不恥下問)!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산도 제승당에 3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군사에 관한 한 누구든지 와서 말해도 좋다”고 언명함으로써 크고 작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다. 한산도 진영의 1만여 명의 군사와 피란민, 지역주민 및 휘하 오관(순천부, 낙안군, 보성군, 광양현, 흥양현)의 수령과 오폭(방담진, 사도진, 여도진, 발포진, 녹도진) 장수(첨사, 만호, 군관)들은 그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좌로는 친지와 친구들에게 사적인 편지를 써서



이순신 친필 초서체 난중일기.

제, 조카들의 묘소도 여기에 있다. 또 기념관에는 『난중일기』와 두 자루의 칼 등 국보·보물이 즐비하다. 따라서 이곳은 이순신의 소통 리더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통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난중일기

이순신(李舜臣)이 임진왜란 7년(1592~1598년) 동안 군중에서 쓴 일기다. 일기 7책과 서간첩 1책, 임진장초 1책까지 총 9권이 국보 제76호로



숙종이 내린 사액 현판 ‘현충사(顯忠祠)’.

“군사에 관해 누구든지 말하라” 소통채널 열어

‘인간 이순신’의 면모를 『서간첩』에 남겼다. 우로는 도원수, 하삼도(전라, 경상, 충청) 감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등 현장 고급 지휘관들과의 끊임없이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렇듯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안전을 위해 쓰였다.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尚有十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필사즉생(必死則生) 필히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등 그가 남긴 탁월한 혜안의 명언은 오늘날에도 회자되어 시공을 초월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현충사가 있는 이곳은 생가터와, 장인·장모 묘소, 막내 아들 면의 묘소가 있고 북쪽으로 약 9km 지점인 어라산(음봉면 삼거리)에는 충무공의 묘소와 정조대왕의 『어제신도비』가 자리하고 있다. 충무공 부모와 형

지정되어 있다. 『난중일기』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선조 25년(1592년) 음력 1월 1일부터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이틀 전인 1598년 음력 9월 17일까지의 2,539일 중에서 1,491일(한산도 1,028일)의 생활과 전란의 정세에 대해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일기이다. 내용은 시취(時趣)에 넘치는 일상생활, 동료·친척과의 왕래 교섭, 이순신 본인의 개인적인 집안일은 물론 당시 조선 수군의 지휘에 관한 비책(秘策), 국가 및 조정에 대한 충성과 강개, 일본군에 대한 분노의 감정 토로 등이 실려 있으며, 상관과 장수 및 부하들 간의 갈등 문제를 비롯해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록하고 있다.

임진장초(壬辰狀草)

‘임진장초’는 임진왜란 중 주요 전투의 출전 경과와 전과 보고를 비롯

하여 일본군의 정세, 군사상의 건의, 수군 진영의 현황 등을 조정에 보고한 문서인 장계(狀啓)를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것이다. 1592년 4월 15일부터 1594년 1월 15일까지 3년 치 61편이 실려 있다. 각 장수의 군공뿐 아니라 전사자와 부상자의 경우 최하급 병졸까지 그 이름을 낱낱이 적고 있어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각 속지 지면에는 ‘전라좌도수군절도사인(全羅左道水軍節度使印)’이라는 네모난 붉은 도장(주인 朱印)이 찍혀있다.

서간첩(書簡帖)

‘서간첩’은 충무공이 현건과 현덕 등 두 사람에게 보낸 편지 6편을 묶은 책이다. 전라도 영암의 현씨 가문에 300년 간 전해지던 편지인데, 충무공의 8세손이 전라병마 우후(정4품)로 있을 때 얻어 첩으로 만들어 종가에 보관했다. 개인적 편지글인데 편지마다 전란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탐방꾼 정보 활용...23전 23승 '위업'

있다.
“현 지평(사헌부 정5품) 정안(靜案) 들으시오. 임금님의 병이 회복되심은 신하와 백성들의 경사이니 손뼉 치며 축원하는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중략> 저는 괴로운 진중에서 나라의 은혜가 망극하여 품계가 정헌대부(正憲大夫 정2품)에 오르니 감격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호남은 국가의 울타리이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제 한산도에 나아가 진을 치어 바닷길을 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략> 편지를 쓰려하니 슬픈 마음만이 간절할 뿐입니다. 남은 할 말은 일이 매우 번잡하여 어지럽게 대강 적고 사례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계사년 1593년 7월 16일 척하 이순신 올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라는 말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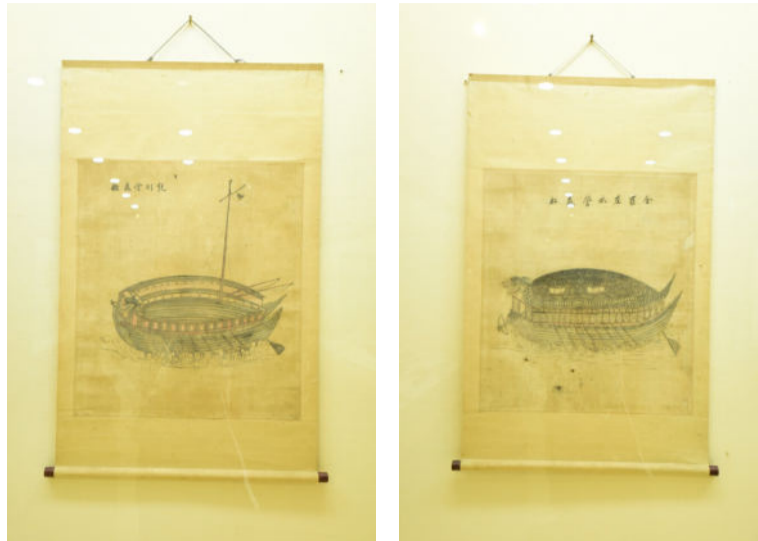
31세 대선배 정걸을 설득함

이순신 장군의 소통과 용인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1591년 2월 13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정3품)로 부임한 이순신 장군은 3월부터 거북선 창제에 나섰다. 임진왜란 발발 14개월 전이었다. 또 1577년 전라좌수사를 역임한 31세 대선배인 ‘백전노장’ 정걸(丁傑 1516~1597)을 찾아가 조방장(助防將 참모장)으로 모시겠다고 청했다. 당시 정걸은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사, 경상우수사를 역임하고 퇴직한 상태로 군대의 대선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후배 장수’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정걸의 우국충정은 높이 살만하다.

자신을 낮춘 겸손 리더십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陳璘)은 1598년 사료병진 작전의 일환으로 7월 16일 충청도에서 서해로 남하하여 완도 옆 고금도(묘당도)의 이순신 수군 진영에 합류했다. 진린의 임무는 등자룡, 이순신과 함께 순천왜성의 고니시 유키나가를 사로잡는 것이었다. 포악하고 사나운 성품의 진린에 대해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순신의 고충이 클 것이다. 그래서 작전이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의외로 진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대했다. 그래야만 앞으로 펼쳐



『이충무공 전서』에 나타난 전라좌수영 거북선(왼쪽), 통제영 거북선(오른쪽).

질 작전이 순조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감(진린)은 명나라 대장으로 이곳에 와서 왜적들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모든 승첩은 바로 대감의 승첩인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베어온 적의 머리를 대감에게 드리는 것이니 황제께 이 공을 아뢴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니 도독이 크게 기뻐하며 이순신의 손을 잡고 “내가 본국에서부터 장군의 이름을 많이 들었더니 과연 허명(虛名)이 아니었소”라며 종일토록 취하며 즐거워했다.

원균과 상반된 리더십

‘맨손으로 호랑이를 물리치고 걸어서 황하를 건넌다’ 이 무모한 포호빙하(暴虎馮河)의 리더십은 원균이 취한 것이다. 반대로 ‘꾀(智謀)를 써서 일을 성공시킨다’는 호모이성(好謀而成)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다. 이순신 장군의 주특기인 탐망을 내세운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전략, 즉 ‘이기는 싸움’과도 맥이 통한다.

도체찰사(오늘날 합참의장) 이원의(李元翼)은 “왜적들이 꺼리는 수군이니, 이순신을 체차(遞差 교체함)해서 안 된다. 그리고 원균(元均)을 대리로 파견해선 안 된다”고 적극 이순신을 옹호했다.

‘소통의 산실’ 운주당(運籌堂)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1593년 7월 15일 여수(당시 순천부)의 영(營)을 한산도로 옮겨왔다. 그리고 운주당(運籌堂)이란 작전통제소에서 불멸

의 신화를 창조했다. 운주당은 운주유악(運籌帷幄), 즉 ‘장막 안에서 작전을 계획한다’는 뜻이다. 운주당은 오늘날 제승당(制勝堂)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순신은 운주당의 문을 활짝 열어 소통을 했다. 졸병이라도 군사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게 했다. 전투에 앞서서는 반드시 부하 장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작전을 짤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었다.

왕과의 소통

선조는 임진왜란을 직접 당한 임

충(忠武公)을 발간을 지시했다. 그리고 내탕금(內帑金 왕의 사적 금고)을 내서 발간비용을 지원한 결과 1795년 마침내 이충무공전서가 발간되었다. 정조는 1793년 이순신 장군을 영의정으로 추증했다. 1794년에는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지은 『어제신도비(御製神道碑)』를 세웠다. 또한 치제문(致祭文)을 직접 지어 통영 충렬사에서 제사하게 했다.

“내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에 기초가 된 것은 오직 충무공 한 분의 힘, 바로 그것에 의함이라. 내 이제 충무공에게 특별한 비명을 짓지 않고 누구 비명을 쓴다 하라. 당나라 사직을 안정시킨 이성과 한나라 왕실을 회복시킨 제갈량을 합한 분이 충무공이다.” 정조는 이순신 현양(顯揚) 사업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

맺음말

이순신 장군의 충, 효, 애민, 창의 등 문무를 겸한 전통 사상은 인격 함양의 보고(寶庫)로 모자람이 없다. 오늘날 인성이 사라졌다는 ‘인성 불모지’ 땅에서 인간 본연의 심성을 되찾는데 이순신의 인성 핵심 DNA만큼 좋은 교재는 없을 것이다. 그의 핵심

정조대왕 “제갈량에 버금가는 충신” 흠모

금으로 이순신을 발탁하기도 하였지만 또한 시기 질투하여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1597년 7월 27일, 선조는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한다는 기복수직교서(起復授職敕書)에서 미안함을 밝혔다. “나는 그대를 버렸건만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일등 공신으로 뽑았건만 포상이 오히려 부족하다.”

숙종대왕의 칭송

숙종대왕은 이순신장군을 칭송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그리고 현충사의 현판을 직접 써서 내렸다.

살신순절 고유차언(殺身殉節 古有此言) 절개에 죽는단 말은 예부터 있지만 망신국활 시견사인(亡身國活 始見斯人) 제 몸 죽고 나라 살린 것 처음 보네.

정조대왕의 흠모

정조는 1792년 『이충무공전서(李

인성요소는 2015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투영되어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으로 재탄생했다. 여기서 언급된 소통은 이순신 장군이 상하좌우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적절한 정보를 취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외 정세를 볼 때 나라의 앞날이 위태롭다.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난무한 채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혼용무도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소통 기술을 음미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00여 년 전 풍전등화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소통으로써 수많은 역경을 헤쳐 해나갔고 끝내 나라와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다. “모든 시대에는 신이 있다”는 랑케(독일 실증사학자)의 말처럼 이순신 장군은 그 시대의 신이었고,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소통의 달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페인 대정전’ 사태…세계가 떨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 ‘경고등’



전익식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부국장

지난 4월 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속한 이베리아반도와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등 대도시 지역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미니국가인 안도라에서 원인불명의 정전 사태가 벌어져 전기를 사용하는 기반 시설이 모두 멈추면서 반도 전체가 중세시대로 변한 듯했다.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자 컴퓨터가 꺼지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생겼고 지하철에 타고 있다가 갇혀버린 시민이 수만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휴대전화 작동과 상점의 신용카드 결제까지 먹통이 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중단되자 현금이 떨어진 외국인 관광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사전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로 금융, 통신, 교통 등 필수 국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자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던 환자들의 인명 피해가 여럿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선 슈퍼마켓에서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다수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이웃나라 포르투갈에 비해 피해가 엄청난 스페인은 대정전이 시작된 당일에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프랑스에서 여분의 전기를 송전받으면서 12시간 만에 대부분 상황이 복구되었으나 사상 초유의 정전이 남긴 후유증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비해 태양광 60%, 풍력 발전 12%, 총생산량의 70%가 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화력발전이나 원전을 되도록 회피하고 지난 몇 년간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온 터라 이번 정전 사태는 뼈아픈 경고가 된 셈이다.

사고 직후 페드르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베리아반도 대정전 발생 경위에 대해 “생산 전력의 15기가와트(GW)가 단 5초 만에 갑자기 사라지면서 정전이 시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는 어떤 가설이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잠재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보여준 ‘올스톱’ 스페인 대정전.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베리아반도에서 발생한 대정전

진동이 일어나면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동기화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론과 사이버 공격을 의심하는 의견도 등장했으나 산체스 총리는 정전 사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준다.

이번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없지 않다. 이베리아반도는 프랑스 남부 대륙과 약한 형태로 일부만 잇닿은 지역이라 전력망 4기가와트, 모로코와는 0.8기가와트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 용량은 스페인 최대수요의 5% 미만이다. 유럽 각국의 전력 연계량은 평균 15%로 스페인이 크게 뒤떨어진 것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앞서 있으나 전력망 안전성은 충분하게 확보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은 스페인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니 결코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친환경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처럼 원전을 제외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다가 이베리아반도 같은 대정전 사태를 맞는다

전력망 안정성 등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탈원전 국가 이탈리아-벨기에 등 원전 부활

사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직 스페인 정부의 정전 원인 분석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전문가가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증가를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 4월 어느 날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이 하루의 모든 소요량을 태양광 전기로만 충당한 적이 있을 만큼 발전량이 오락가락한다.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전압이나 주파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발전이 중지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을 때 한 지점에서 전압이 순간적으로 불안정하면 근처의 다른 발전시설이 이를 감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 전문가의 견해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날씨나 일조시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므로 전력저장소 같은 보호장치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이상

재생에너지의 높은 비중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연관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스페인과 달리 유럽 대륙의 다른 국가들은 대정전 사태를 계기로 자국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나 전력망 안정성과 기술적 기반을 외면하고 일방적 전환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무게추가 실리는 추세다.

먼저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 의회가 얼마 전에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벨기에에는 5월 15일 원전 부활을 선언, 22년 전에 만든 탈원전 공약을 폐기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독일도 재생에너지 주력 국가의 대정전 사태를 보고 원전을 태양광 발전과 동등하게 하려는 프랑스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40년간 원자력 발전 금지 정책을 시행해 온 덴마크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도입 의사를 내놓는 등

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 면적이 스페인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전력 소비량은 더 많은 것이 인터넷 선진국인 우리의 현실이다.

같은 반도국이지만 한국은 머리 위로 북한과 맞닿아 있고 나머지는 삼면이 망망대해라서 완전 고립 상태가 된다. 스페인처럼 전력 1기가와트라도 나눠 쓸 친한 이웃도 없고 전기를 공급받을 송전선도 없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해 후보로 나선 두 정치인은 앞으로 국가를 지탱할 에너지 분야 공약에 대해 극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진보 이재명 후보는 일부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을 주장하고 있고, 보수 김문수 후보는 AI 같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 원전 비중을 60%로 높여 안정적 전력원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라 과연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신호등 없이 소통하는 교차로 역사속으로

1967년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6>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성찰은 아쉬움이거나, 조용히 미소 짓는 추억이거나, 미처 이루지 못한 사랑이거나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는 날의 그리움이다. 지금, 서울 용산의 삼각지 네거리의 빨간 불, 파란 불의 교통신호에 따라 선거철이나 정치판에서 흔히 듣는 우클릭이니 좌클릭이니 직진이니 유턴까지도 하지만, 1967년의 그 네거리는 원형의 2층 로터리를 만들어 1994년 철거 때까지 27년 동안 차들이 신호없이 '돌아가는 삼각지'였다.

그 삼각지 로터리에 굶은비 내리던 어느 날 작사가 이인선이 연인을 잃고 빗속에서 있는 한 사내를 보고 노랫말을 적어 작곡가 배상태에게 건넸다. "삼각지 로터리에 굶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가요의 명곡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는 이렇게 만들어져 1970년 박종호 감독, 문희, 김희라, 장동휘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됐다.

삼각지에 2층 입체 로터리가 만들어진 1967년 그 해 3월 16일 작곡가 배상태는 신장병을 앓고 있는 배호와 여관방에서 '돌아가는 삼각지'를 4시간 동안 연습하고 녹음을 했다. 가슴 찡한 그때의 상황을 두 사람은 육성으로 녹음해 '돌아가는 삼각지'의 앞부분에 실었다. 아픔 속에서 두서없이 한 얘기를 현장감을 위해 그대로 적는다.

배상태의 말이다. "배호가 곡을 들어보고는 하겠다고. 그런데 숨도 못 쉬는데 그 노래를 시키려니까 참 안됐더라고. 그런데 아파 보여도 목소리나 고음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그 고음에 고음 그 애절한 소리에 더 호소력 있어가지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호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딱 한 곡(돌아가는 삼각지) 부르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녹음한 다음에 그 곡이 나는 절대 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판이 나왔어요. 빨리 턱 틀어보니까 이걸 뭐, 그냥 하나 아픈 거 같은 그런 것이 없고 말이야. 나 이런 걸 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말이야." 삶도 예술도 절실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호소력이 감동을 준다.

배호의 본명은 배만금이다. 1942년 광복군 배국민의 아들로 중국 산둥성 지난에서 태어났다. 해방 후 가족과 귀국해 서울, 부산 등지에서 어렵게 지



1967년 건립됐다가 1994년 철거된 용산구 삼각지 로터리.

내다 외숙부 김광빈의 MBC 악단에서 드럼연주자로 활동하던 1963년 김광빈 작곡의 '굿바이'로 데뷔해, 1971년 배상태의 '영시의 이별' '마지막 잎새'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운명처럼 29세의 생을 마감했다. 가수 생활 8년 동안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누가 울어'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비 내리는 명동' '안녕' 등 200여 곡을 남겼다. 작곡가 박시춘은 배호를 "백 년에 하나 나오기 어려운 가수"라고 했다.

배호가 떠난 지도 54년. 하지만, 지금도 그는 팬들 곁에 그리움으로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2번 출구를 나오면 오른쪽에 팬클럽이 마련한 기타치는 배호가 벤치에 앉아 있다. 그리고 삼각지 네



1967년 출판된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음반.

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 문화예술상' 심사위원장을 맡았었다. 대중문화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하는데 배상태의 추천은 몇 해가 가도 없었다. 한국가요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잊혀지고 있었다. 기자 시절 인간적으로 작곡가로서의 배상태를 알고 있어 2016년 심사 때 현장에서 추천해 보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배호는 세상을 떠난 지 32년이 흐른 2003년 옥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웬지, 요즘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를 들으면 가슴에 비가 내린다. 지금 우리 정치, 사회가 '돌아가는 삼각지'를 녹음하던 1967년 그날의 아픔을 이 시대의 통증으로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삼각지 로

투병 중 배호 애절한 목소리 팬들 가슴 울려 과속보다 완급 조절하는 '정치판 지혜' 아쉬워

리에 용산구청이 세운 '돌아가는 삼각지'의 노래비가 있다. 또 경기도 신세계 공원묘원에 '두메 산골',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 '마지막 잎새', 강릉시 주문진에 '파도'의 노래비가 있다.

삼각지에서 화랑을 운영하며 배호 팬클럽을 이끄는 김수영 회장의 말이다. "배호 님의 팬클럽은 1998년에 발족됐어요. 온라인상의 회원은 6만 명이 고 팬카페에 등록된 회원은 4천 명이예요. 그리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40여 명이 모여 배호 님의 노래도 듣고 인생 얘기도 하면서 추억합니다. '배호 모창 가요제' 같은 행사도 하고요" 회원들은 대부분 배호 노래가 유행했던 1960~70년대의 청춘들이다. '돌아가는 삼각지'의 작사가 이인선은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갔다 홀로 귀국해 2014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작곡가 배상태는 패혈증과 만성신부전증을 앓다 지난 3월 26일 86세에 생을 마감했다.

세월은 역사를 만들지만 기억을 망각으로 지운다. 나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 콘텐츠진흥원

타리를 해매 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 속의 사내가 왜 이별을 했으며 비 내리는 삼각지를 찾아왔다 돌아갔는지. 그 사연이야 노래에 서사가 없어 알지 못한다.

다만, 삼각지로 가는 길은 좌회전, 우회전, 직진도, '돌아가는 삼각지'도 있다. 그런데 직진 한길만을 가다 보면, 과속의 속도 위반도, 추돌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인생이고 정치판의 생리다. 좌우를 살피고 백미러도 보고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가 정치의 기술이다. 우리는 지금 무려 2년이나 과속해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 귀따갑게 들리는 민주니, 민생이니, 자영업자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더 이상 '선거철의 거짓말 경연대회'용 수사가 아니기를 각성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위기가 기회이기를... '돌아가는 삼각지'에는 오늘도 배호의 노래만 쓸쓸하다.☞

신대남(본회 회우·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한국 축구 '긴장' **6월** 일본 축구 '여유'

2026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상반된 입장

성하(盛夏)의 계절 6월이다. 한국 축구는 '긴장의 6월, 일본 축구는 '여유의 6월'이다. 한국의 흥명보호는 6월 중 만만찮은 이라크, 쿠웨이트와의 최종 예선에서 1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어 손흥민(영국 토트넘) 등 최상의 멤버가 나서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반면 2026 월드컵 본선 티켓을 세계에서 맨 먼저 확보한 일본의 모리야스 하지메호는 만만한 상대인 호주,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유망주 발굴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려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시아에는 8.5장의 본선 티켓이 배정됐다.



한국 흥명보 감독.



일본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모리야스(56) 감독 체제의 일본 대표팀은 6월 월드컵 3차 최종 예선을 차세대 스타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만큼 여유를 보이고 있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는 최근 "일본은 6월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두 경기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세대를 다수 기용할 예정이다"라며 "지난 3월의 A대표팀 명단에서 10명 정도가 바뀔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모리야스호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C조 7경기 중 6경기에서 승리하며 본선행을 일찌감치 확정지었다. 일본은 2026 월드컵 공동 개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중미 월드컵 진출권을 획득했다.

'스포니치 아넥스'는 "9, 10차전에서 여유로운 경기 운영이 가능해진 일본은 6월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젊은 선수들을 기용해 팀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며 "5일 호주, 10일 인도네시아전에서 2024 파리올림픽에 나갔던 23세 이하 세대가 대거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

이종세(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한국, 이라크·쿠웨이트 戰 1무 이상 해야 일본은 호주·인도네시아에 저도 본선행

대한축구협회, 26일 대표선수 명단 발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흥명보(56) 감독이 기자회견을 갖고 6월 A매치에 나갈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 대표팀은 현재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에서 4승 4무 승점 16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2위 요르단(승점 13)과 3위 이라크(승점 12)에 승점 3점 이상 앞

서 있어, 남은 두 경기에서 1 무승부(승점 1점)만 기록해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한국 대표팀은 6월 6일 이라크 바스라에서 이라크와 3차 예선 B조 9차전을 치르고, 10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최종 10차전을 가질 예정이다.

본선 진출이 유력하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경

기들인 만큼 최정예 멤버 기용이 예상된다. 손흥민, 이강인(프랑스 PSG), 이재성(독일 마인츠) 등 해외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을 마치고 휴식 후 대표팀에 합류했다. 소집된 선수들은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이라크로 출국했다.

일본, '젊은 피' 10여명 영입할 듯 세계에서 맨 먼저 2026 북중미 월

한국 남자 배드민턴 '젓줄'

전주 생과고 60여년 전통

지난 5월 한국의 세계 배드민턴 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준우승을 견인한 박주봉(61) 감독과 김동문(50)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둘다 전북 전주생명과학고(이하 전주생과고) 동문인 점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인 박주봉, 지난 1월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당선된 김동문 외에도 윤종오(70) 전 국군체육부대 감독, 권승택(69) 전 삼성전기 총감독, 유갑수(66) 전 광주은행 감독 등이 전주생과고 출신이다.

또 이득춘(63) 시흥시청 감독,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우승한 하태권(50)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감독, 임방언(47) 정관장 감독,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고(故) 정재성 전 삼성전기 감독,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우승 등으로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유연성(39) 한국 실업 배드민턴연맹 회장도 전

주생과고를 나왔다. 전주생과고가 한국 남자배드민턴 선수 보급의 젓줄이자 보고(寶庫)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한국 선수 최초로 2001년 세계배드민턴연맹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박주봉 감독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린 수디르만컵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8일부터 고향 전주에서 그의 공적을 기리는 '2025 박주봉 배드민턴대회'가 11일까지 열려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이 대회는 지난 2023년 창설, 올해가 3회째로 국내외 2천여 명의 동호인이 참여, 성황을 이루었다.

남고배드민턴 요람 60여년 선수 양성
전주생과고는 전신인 전주농림고 시절부터 60년 넘게 우리나라 남고 배드민턴 정상권을 지켜왔다. 전주생과고 배드민턴은 1960년대 중반 임기순 체육교사가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배드민턴을 학생들에게 보급하면서



전주생명과학고 출신인 박주봉(왼쪽)감독이 고교 후배인 김동문(오른쪽)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과 함께 지난 5월5일 2025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인천국제공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당시 함께 귀국한 여자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이며 그 옆은 서승재 선수.(사진 연합뉴스)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배드민턴은 한국이 1962년 세계배드민턴연맹에 가입,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였다. 하지만 전주생과고는 1세대 선수로 김영준(80·전북 OB), 한성귀(77·삼성전기 감독) 등을 선발, 강화훈련을 통해 국내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며 심심찮게 전국대회 우승기를 차지하곤 했다.

박주봉이 한국 배드민턴대표팀 사령탑을 맡게된 것도 지난 1월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당선된 김동문 회장

의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고 이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통했다는 후문.

전주생과고는 배드민턴이 교기(校技)나 다름없다. 60여년의 전통을 잇기 위해 요즘도 3학년 우성민(18) 등 8명의 선수가 학교의 명예를 위해 기량을 다듬고 있다.

학교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는 정은진(26) 체육 교사는 "학교측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선수들이 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귀곡잔도’ 심장 졸깃, 다리 후들

회우 광장

중국 장가계 22년만에 재방문

22년 만에 중국 장가계를 다시 찾았다. 장가계의 빼어난 풍광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대자연의 걸작품이다. 수목화를 무한대로 늘려 놓은 듯 웅장하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효도관광 1번지다. 1982년 ‘장가계 국가삼림공원’으로 지정됐고, 199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장가계는 천문동과 잔도로 유명한 천문산, 양가계와 원가계, 공중전원을 품은 천자산, 일곱 개의 봉우리가 북두칠성을 닮았다는 칠성산으로 크게 나뉜다. 22년 전엔 개발 중이라 둘러보지 못한 천문산이 첫 일정이다. 광장엔 케이블카를 타려는 긴 줄이 지그재그로 반복된다.

8인승 케이블카 주택가 지붕 위를 날아올라 협곡으로 접어든다. 케이블카의 길이는 7455m로 30여분 걸린다. 꼬불꼬불한 아흔아홉 굽이 통천대도(通天大道)가 아스라이 내려다 보인다. 케이블카는 중간 기착지에서 서행으로 호흡을 가다듬어 수직에 가까운 정상을 향해 거미처럼 기어오른다.

천문산 동선은 동쪽코스이든 서쪽이든 둘레를 한 바퀴 돌게 된다. 해발 1517m 정상 부근 벼랑에 세운 천문산사는 중국 10대 사찰 중 하나. 당나라 때 지었으나 유적만 남아 청나라 시대에 재건되었다. 가장 아찔한 구간은 귀곡잔도(棧道). 바위산 절벽에 선반을 설치하듯 공중에 매달린 시멘트 산책로다. 비껴 갈수도 없는 난코스다.

천인단애의 절벽에 걸친 잔도 위를 걸으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졸깃해진다. 두려움을 떨치려 절벽 쪽 바위를 손으로 짚고 걷는다. 잔도의 길이는 1600m, 평균 해발은 1400m로 아찔하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죄수와 호적 없는 중국인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잔도의 역사는 오래됐다. 초한쟁패(楚漢爭霸) 당시 유방이 파죽지방으로 낙항하며 항우를 안심시키기 위해 잔도를 불살랐다는 고사가 떠올랐다. 바다가 투명한 유리잔도는 옵션이지만 공짜라도 건너지 않겠다고 가이드에게 사전 예고했다.

천문동에서 천문동 광장까지 다시 에스컬레이터 5개를 갈아타고 내려간다. 999개 계단을 걸어서 오르거나 내려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힘들어 보인다. 계단 하나를 더 만들면 1000개가 되는 데, 천(天)은 하늘로 승천한다는 의미



장가계에서 가장 높은 황석채 전망대에서 필자.

가 있어 999개로 만들었다고 한다.

어둠이 내리는 초저녁 천문호선쇼 관람. 천문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외공연이다. 인간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우와 토가족 나무꾼의 러브스토리로 한글 자막이 나온다. 장가계에는 20개 소수민족 가운데 토가족이 가장 많다. 500여명이 출연해 스케일이 크다. 화려한 조명, 레이저 특수효과에 다양한 퍼포먼스가 돋보인다. 장예모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다.

황룡동굴&십리화랑

다음 날 첫 일정은 황룡동굴. 아시아 최대의 종류석 동굴로 보트를 타고 5분 정도 들어간다. 용틀임 장면

명유리로 봉우리들이 코앞을 스쳐 간다. 88초, 눈 깜빡할 사이 올라간다.

천자산 하룡공원에서 바라보는 ‘어필봉(御筆峰)’은 다시 봐도 일품이다. 흠이 없는 돌 봉우리 위에 푸른 소나무가 자라서 마치 붓을 거꾸로 꽂아 놓은 듯하다. ‘미혼대(迷魂臺)’는 협곡에 솟은 바위 봉우리들이 낮을 빼앗을 정도로 장엄하다. 300m 높이의 협곡에 커다란 두 개의 바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자연석 다리는 말 그대로 ‘천하 제일교’다.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봉우리들은 영화 ‘아바타’의 ‘할렐루야 산’의 실체로 묘사됐다. 토가족들의 삶의 터전인 공중전원의 8자형 논밭은 주변의 기이한

영화 아바타로 유명한 천자산 절경

등 레이저가 화려하다. 하이라이트는 석순(石筍) 1,000여개가 숲을 이룬 ‘정해신침(定海神針)’. 석순이 1cm 자라는 데 100년이 걸린다니 정해신침이 천장에 닿으려면 6만년 걸리겠다. 습기 머금은 계단에 미끄러질까봐 조심스럽게 오르내린다.

‘십리화랑(十里畫廊)’은 왕복 십리 구간에 대자연이 거침없이 그려놓은 수목화의 화랑이다.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 삼자매봉, 할아버지 얼굴을 닮은 노인봉, 낙타가 앉아 있는 형상의 낙타봉 등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이 눈길을 끈다. 업그레이드 된 모노레일을 타고 느릿느릿 산속을 누빈다.

공중전원&황석채

엘리베이터 승강장까지 가파른 계단을 오른다. 백룡엘리베이터는 335m 100층 높이로 바위벽에 세웠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위쪽 170m는 투

봉우리들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이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황석채에 올랐다. 태어나 장가계에 가보지 않으면 100세가 되어도 늙었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듯, ‘황석채에 오르지 않으면 장가계에 왔다고 할 수 있는가(不上黃石寨 枉到張家界)’라는 문구를 대형 입간판에 새겨놓았다. 황석채는 장가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연전망대로 그 일대가 모두 발아래 펼쳐진다. 장가계는 한 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평정한 책사 장량(張良)이 터를 잡은 곳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장량에게 병법서를 건네줘 전략가로 거듭나게 한 ‘황석공(黃石公)’ 이야기가 나온다. 장량의 스승격인 황석공이 여기서 도를 닦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 황석채다. 장가계의 모든 기(氣)가 모였다는 망루 육기각(六奇閣) 앞에서 가슴을 활

이달의 시

봄의 찬가

지난 가을 큰 눈에
이 숲의 늙은 비목이 쓰러졌지요
늙은 거목이 쓰러지면서
나무가 살아온 오랜 세월도 함께 쓰러져
눈 속에 깊이깊이 파묻혔지요
어느새 이 숲에 새들의 지저귀이
살아날 때 즈음
눈은 녹고
개울의흐름을 보태었지요
물기를 뒤집어쓰고 모습을 드러낸
쓰러진 거목
아, 거기엔 기적처럼
작은 잎새 하나가 피어있었죠
그 잎새에 이제 막 당도한 햇살이
밝은 인사를 전하자
숲은 우렁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면서 기지개 켜고
양상하던 가지들이 몸을 떨면서
긴 겨울을 살아냈음을 축복했지요
그래요
살아 있음은 복된 것이었어요
그 무서운 계절에 굴복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장한 일이었어요
죽어 쓰러진 괴목마저도 온전히 쓰러진
것이 아니었어요
삶을 찬미하는 봄에
이 거룩한 봄에
우리다시 눈물겨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유자호

본회 회우/ 전 한국시인협회 회장

짝 펴고 기를 흠뻑 들이킨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2019년 방문하여 “지상 최고의 절경이다”고 격찬한 방문기념비가 보인다.

보봉호&대협곡

마지막 날 이른 아침 도착한 보봉호는 우리 일행이 첫 방문객이다. 22년 전 천막을 쳤던 나룻배는 기와지붕을 얹어 품격이 높아졌다. 보봉호의 길이는 2.5km, 평균 수심은 72m의 반인공 반자연호수. 기이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운치기 그윽하다. 들어갈 때 토가족 청년이 나룻배에서 나와 노래 부르고 나올 땐 반대편에서 여성이 나와 노래를 부른다. 예전엔 호수 안쪽 작은 섬에 내려 토가족의 민속공연을 봤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가마우지로 고기를 잡는데 생계형이 아니라 관광용 같다. 2016년에 개방한 대협곡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400m), 가장 긴 유리다리(430m)를 건너야 하기에 패스했다.☞

이규섭(본지 전 편집위원장)

총 6건 가짜뉴스-왜곡-선동 등 불공정 보도

대한언론 공정보도심의위원회 9차 회의



◆ **서옥식 위원** : JTBC는 지난해 12월 6일자 방송에서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에 대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 소집된 교도관들에게 빈방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 그 이유는 계엄 선포와 함께 체포된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100% 가짜 뉴스였다.

동부구치소 측은 즉각 JTBC 보도가 근거가 전혀 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혔으나 JTBC는 2개월이 되도록 정정보도를 하지 않다가 법무부 신청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2월 6일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주요 탄핵소추 이유의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현재 심리 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현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고인 국회 측도 가짜뉴스를 탄핵 사유로 삼는데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 **김 화 위원** :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18일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담은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보관하는 ‘영현백’ 3천개를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육군이 “2022년 이미 계획했던 구매량을 수령한 것으로 비상계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반박과 함께 관계기관들의 문서 등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100% 허위보도로 판명되었다.

문제는 이 허위보도가 민주당의 “한국판 킬링필드가 될 뻔 했다”는 내용의 논평에 이용됐고, 김어준이 민노총, 정의구현사제단, 대진연 등 숫자를 합치면 2천명이라며 선전선동하는데 악용됐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스카이데일리는 법복을 입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여성팬티

대한언론인회 공정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오전 대한언론인회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수집한 6건의 신문·방송 보도

내용을 불공정 보도로 선정해 그 내용을 ‘대한언론’ 6월 호에 보도기로 의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차 공정보도심의위원회 회의.

하나만 입고 하반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발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온 몸으로 문을 막는 모습의 만평을 보도했다. 문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으로 ‘빨갱이’라는 비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변태 표현은 음란물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

등을 강조한 반면 ▲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라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강화 계획을 밝혔다’라고 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을 앞세우며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의지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내일 경제분야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5억원 대위?”라고 배우가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힘은 경선 통과할 때마다 1억씩 내야 한다”, “국민의힘 탈락자 4명은 TV 토론 한 번 하는데 1억원씩 쓰는 셈이죠. 가장 비싼 참가비라고 볼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TV 토론 최대 3회에 3억원인 반면 민주당은 TV 토론 2회에 4억원을 내야해서 김동연·김경수 후보 측에서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같은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민주당보다 TV 토론 기회는 더 많고 기탁금은 오히려 적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장 비싼 참가비라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이 보도내용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했다며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8조 및 제12조 위반으로 방송심의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jtbc 동부구치소 보도, 현재-국회 ‘모르쇠’ MBC 뉴스데스크 ‘시신 종이관’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문형배 대행 만평’ 품격 상실 5월 대체 공휴일에 언론-당국 홍보 부족

신문윤리위원회는 “만평의 표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고 문 대행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신문의 품격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경고 조치했다.

◆ **전익식 위원** : MBC <뉴스데스크>는 4월 15일 방송에서 기자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및 후보자들의 동향 등을 보도하면서 ▲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리포트 제목과 화면 왼쪽 위에 <반성 없는 ‘빅텐트’론>, <극우언어가 발목 잡을 것> 등의 자막을 내보내며 ‘네거티브 공세’, ‘경선 흥행에 빨간불’, ‘자중지란’, ‘중국 혐오 정서’

고 보도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일부 발언이나 행보만을 부각시키며 최대한 부정적으로 묘사한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부정적인 면은 지적하지 않고 행보와 공약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편파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2조 사실 보도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

◆ JTBC는 4월 16일 방송한 <뉴스룸> ‘돌비뉴스’ 코너에서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이 뽑힌 상황에 대해 “3명이 컷오프됐는데도, 이 떨어진 3명은 경선 기탁금 1억원을 내고 불과 하룻만에 서류 심사에서 바로 탈락한 겁니다” 라고 보도했다. 특히 영화 <타짜> 내용 중 “한 곳? 한 곳인데

◆ **조희곤 위원** : 지난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느 때보다 휴일이 많은 달이었다.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 날(5일), 부처님 오신 날(5일)이 그것으로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겹쳐 다음 날인 6일이 대체 공휴일이었다. 그런데 당국이나 언론이 어느 날이 대체 공휴일인지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관공서에 문의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2일만 쉬게 되면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큰 관심사였다. 이처럼 국민들의 관심사에 언론이 공휴일 지정 여부를 자세히 안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 : 이규진 총괄부회장>



작약의 계절...꽃 향기 가득한 서울대공원



1년의 한허리 아름다운 5월 6월은 장미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시기. 꽃향기 가득한 서울대공원 장미원축제엔 정치의 시름을 벗은 나들이객들로 가득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데...

6월이 오면... 난 하루종일 내 사랑과/ 향긋한 잔디 위에 앉아 노래할 거야/ 그녀는 노래하고... 하루종일 달콤한 시들을 읽어야지/ 오, 인생은 즐거워라 6월의 꽃들이 노래하면. (최명우·편집위원장)

명품인생

‘상과 下’의 교향곡

어느 우리 가요 중에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하는 가사가 있다. 경부선을 예로 들자면 부산서 서울로 가는 기차는 상행선이요,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 차는 하행선이다.

천안에서 서울로 가려면 상행선을 타야하고 대전으로 가려면 하행선을 타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서울로 갈 때는 올라(上)가고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下)간다 한다. 그럼 왜 서울은 올라가야 하며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가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설명하자면 서울은 왕이 있는 곳이므로 높이어 상경(上京)이라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은 하향(下郷)이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선 ‘상과 하’의 싸움이 치열하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빅코리안으로 주목받는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위를 보고 걷는다. 이정후는 홈런을 펄펄 쏘아대는 거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저 단타만 생산’하는 교타자인 것만도 아니다.

이제 시작하는 중이지만 그는 벌써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타격 천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교타자이자 3차례 타격왕에 오른 아라에스보다 더 낮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라에스는 2023년 타율 0.354로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1위에 올랐고, 2022년과 2024년엔 각각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타격왕을 차지한 대스타이다.

그런데 이정후는 아라에스와 같이 단타만 치는 타자가 아니라 장타력까지 갖춘 콘택트 타자로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이끌고 있다. 그는 정상을 바라보고 나무랄 것 없는 상행선을 타고 있다.

그런데 다 같은 ‘상과 下’의 싸움이지만 우리 정치판은 정말 개판이다. 오직 상행선만을 노리기 때문이다. 패자에게도 찬스가 살아있고 그의 오기나 투혼과 더불어 다시 상

행선을 탈 수 있는 티켓을 구할 수 있을 터 인데도 여기서 지면 끝장이라는 절망감이 팽배해있다. 이유는 하나. 이 극한의 대결에서 승자는 영구집권이요, 패자는 폭망이라는 절대성 불안감 때문이다.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치르고 하향 보따리를 싸면 그만인데도 굳이 세상을 바꿔 정상에 등극하겠다는 그 망상의 뿌리가 문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한 것은 작가 이문열이다. 날개로 나는

기가 잇따라 같은 사고를 내면서 지구촌을 확 뒤집어 놨다. 보잉737 맥스는 사고원인이 분명히 밝혀지기도 전에 추락하는 비행기로 낙인찍혔다.

비행기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타기 어렵다. 비행기 공포증으로 아예 항공여행은 포기한 이들도 적지 않다. 멀쩡했던 사람들까지 이륙공포에 떨게 생겼다고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타국 항공사의 맥스 기종이 자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역지 상향’ 치졸한 욕망은 추락의 비극 부른다

단타만 치는 타자가 아니라 장타력까지 갖춘 콘택트 타자로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이끌고 있다. 그는 정상을 바라보고 나무랄 것 없는 상행선을 타고 있다.

그런데 다 같은 ‘상과 下’의 싸움이지만 우리 정치판은 정말 개판이다. 오직 상행선만을 노리기 때문이다. 패자에게도 찬스가 살아있고 그의 오기나 투혼과 더불어 다시 상

비행기는 추진력을 잃으면 추락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추락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윤배반적 운명을 지닌 것이 또한 비행기이다.

지난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 항공기는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었다. 이보다 4개월 전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한 비행기도 같은 기종이었다. 동일 기종의 비행

이착륙하는 것까지 금지했다.

사람도 신뢰를 잃으면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다.

굳이 누구라고 지적할 것도 없지만 그 누구든 하행의 빌미가 될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역지 상향의 치졸한 욕망이 추락의 비극을 부른다.☞

강이산/극작가

(克日) “50년 극일 목표…모교연세대에 20억 기부”

‘정밀화학 포장용기’ (주)크로바케미칼 강선중 회장 인터뷰



장석영
본회 회장

모교 연세대에 20억 기부, “50년 극일 (克日) 목표 잊지 않아”

한우물만 파고 오로지 ‘극일’이란 의지를 갖고 회사를 굴지의 중견기업으로 키운 기업인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모교인 연세대에 20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2002년도에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주인공은 정밀화학 포장용기 업체인 크로바케미칼 창업



강선중회장(왼쪽)이 연세대 발전기금 20억원을 운동선 연세대 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했다. 그는 “창업 당시부터 일본을 뛰어넘자는 극일(克日)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50년 경영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이 목표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기술 강국이던 일본을 뛰어넘지 않고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물론 세계 일류기업을 만들겠다는 강회장의 꿈은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기술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집중적인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진기술 도입이 절실했다.

강회장은 고민 끝에 이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지닌 독일 마우저사를 찾아냈다. 그러나 ‘1국1사’ 등 까다로운 제휴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어려움에 봉착했다. 결국 5년의 설득 끝에 마우저사와 기술 제휴에 성공했다. 이 덕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

불모지 ‘블루오션 개척자’로 글로벌 빅4우뚝 “창업 꿈꾸는 청년들 한우물 파기 전력해야”

주인 강선중회장(83)이다. 강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을 정도로 회사가 성장한 만큼 이제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정치학과 61학번인 그는 원래의 꿈이 정치인이었다. 그의 부친은 경남 진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부호였다. 조부와 부친 모두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명문가 집안에서 종손으로 태어난 그가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

그러나 부친이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때가 고3때였다. 그가 연대 정외과에 입

학한 것도 부친의 못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학으로 버티며 휴학을 거듭하다가 6년 만에야 대학을 졸업한다.

그는 그후 정치가가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먼저 가세를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업가의 길로 가기로 했다고 한다.

결심이 서자 76년 1월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 500만 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40평짜리 허름한 공장을 빌려 사업을 시작한다. 그야말로 가진 것 없이 성공해보겠다고 뚝심 하나만으로 출발했다.

강 회장이 고향 진주의 ‘논개정신’으로 일본을 따라 잡자며 이를 악물고 세운 독극물 포장용기 제조회사인 크로바케미칼이다.

업계에선 강회장을 ‘블루오션 개척자’로 평가한다. 그가 회사를 설립한 1976년엔 위험물질을 담은 특수용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국내에 전무했다.

강회장은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발전하려면 화학제품을 담은 특수용기도 한국에서 제작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는 한때 LG전자의 협력업체로 TV케이스를 생산하기도 했고,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기도 했으나 이를 모두 접었다. 이들 제품은 수익성이 좋았지만 포장용기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 과감히 사업을 정리했다. 한우물만 파기로 한 것이다.

크로바케미칼은 이제 유럽연합(EU)과 아시아권역에 수출하는 글로벌 ‘빅4’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강회장은 “우리가 진출한 산업은 이미 일본과 독일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치열한 시장이었다”며 “독자적인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레드오션을 우리만의 블루오션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회장은 회사의 성공 비결은 ‘뚜렷한 비전과 한 분야 집중’이라고 강조

터 최고의 품질을 인정하는 국제표준 화기구(ISO) 인증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강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초대형 포장용기 글로벌 1위 업체인 독일 슈츠사와도 기술을 제휴하여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용기를 자체생산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지금까지도 위험물질 용기 제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부동산 투자나 다른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권유받은 일이 많았지만 제조업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란 신념으로 ‘한 우물 파기 전략’을 고수한다. 그는 창업을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도 “한 가지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강회장은 사업을 하면서 다섯가지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한 우물 파기, 개인적인 욕심내지 말자, 빚을 얻지 말자, 종업원을 믿고 맡기라, 정직하자’가 그것이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절규한 동지여!

언론인 故 최서영의 추복영면(追福永眠)을 기원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고 절규한 동지여! 탄핵정국의 대 혼란 속에서 홀연히 타계하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친구로, 동향인으로, 언론계 동지로 긴 세월 동고동락한 그대여! ‘한 살’ 터울이 었지만 ‘형아~아우야’ 하며 소주잔 기울인지 60여 성상, 그 세월이 옛 그제 같은데 어찌 떠나는가! 참으로 허망하여라.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날마다 통화하며 쾌유를 기원하고 건강을 다짐했건만, 회천(回天)의 뜻이런가, 운명은 재천(在天)이라 두손 모아 추복영면(追福永眠)을 기원하는 내 마음 아려서 가눌 수가 없네.

언론입국(言論立國)-진부하면 서도 늘 새롭게 울려오는 언론인의 책무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언론이 내외의 도전을 잘 극복하고 정도(正道)를 지킨다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라고 공분하던 우리들, 사회구조가 다원화되어 여러 집단, 계층 간의 이해와 갈등이 얽혀있는 경우라서 더욱 그렇다면서 ‘사회의 목탁’임을 잊지 말자던 아우여!

그대가 떠난 지금 텅 빈 마음, 허탈함을 금할 수 없네. ‘언론은 제4부’라 입법·사법·행정 3부가 국가의 세 기둥이지만 불안전하다며 언론이 한 축을 떠 받쳐야 4개가 튼실해 바로 선다고 일갈한 그 열정의 열변을 앞으로 어디서 들겠는가? 흘러간 옛 노래 같은 케케묵은 잠언들을 다시 들먹이는 이유는 다매체 난립시대인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이 제 길을 상실한 채 본분을 잃고 방황하기 때문일세. 자유민주만 주장할 뿐 소임과 책임을 외면하고 방종하는 탓이야. 그릇된 아류와 시류에 휩쓸리면서 대중적 기호에만 영합함이지. “이 난장판 쓰레기더미를 청소하려는 자정운동이 없다”고 개탄하던 그대의 패기가 다시 그리워지네.

지구 온난화로 양간지풍(襄杆之風)이 거세게 몰아쳐도 태백준령 산천초목엔 이상이 없도록 함이 우리의 과제거늘, 한 세기를 키워 온 우리나라 언론 저널리즘이 북극의 만년설처럼 녹아버리지 않도록



천하를 감시, 비판하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던 그 기백, 그런 기개로 저널리즘의 본질을 지켜가던 큰 별이 또 하나 사라진 게야. 초지일관 의지로 뭉쳤던 언론 동지들-남재희~남시욱에 이어 최서영,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하늘도 무심하여라.

태평로 국회의사당 출입기자 시절 ‘태평로회’ 동지로 다져온 정분, 일선 취재기자로 잔뼈가 굵은 뒤에, 나는 구로 케이블 TV, 그대는



나라를 지켰다》책자를 편찬,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그대, 젊은 패기, 탁월한 지성, 뜨거운 고뇌가 아름다워라. 기자 현직 때에는 물론, 은퇴 후에도 수시로 만나 소주잔 기울이며 담소로 이야기꽃을 피웠던 우리, 해박한 정치 감각, 예리한 문필, 섬세한 지예, 탁월한 관찰력, 세련된 문체, 날카로운 촌평 등으로 언론계에 광채를 뿌리고 말없이 떠난 그대여!

격랑의 시기에 신문과 방송사를 섭렵하면서 언론발전에 기여한 발걸음들, 1960년 4·19혁명, 다음해 5·16쿠데타와 1963년 군정종식을 지켜본 증인, KBS 방송본부장·방송총국장·이사 등의 요직을 맡아 9년을 방송인으로 일한 거인, 언론계 은퇴한 후 대전 한남대학교 초빙교수로 3년 동안 신문과 방송매체의 실무지식을 전수한 족적이 더욱 찬연하여라.

젊은 후배들, 똑똑하지만 기자정신이 없다고 안타까워 한 그대, 아흔에도 강단 넘치고, 달변에 기억

신문과 방송사 외길 ‘한국의 저널리즘’등名著남겨

“다매체 난립, 난장판 언론 자정운동 없다” 개탄

노원 케이블 TV를 맡아 경영하면서 서까지 언론일로(言論一路)를 달리던 시절이 아롱지네.

국민의 방송 KBS가 공사로 재출발할 때 보도국장으로서 스카우트되어 방송언론의 기틀을 잡아놓고,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사장으로 또 다른 기량을 보여준 그대, 현업을 떠난 뒤에도 대한언론인회에서 함께 일한 우리, 언론 외길 92성상은 한국 언론의 시금석 금지탑이여라.

1933년 강릉최씨 명가에서 태어난 준재(俊才), 강릉상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서울신문 기사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를 거쳐 경향신문 정치부장·일본 특파원·편집부국장으로 활약한 그대, 《대한연론》과 《언론계 거목들》 필자로 헌신한 예지, 《한국의 저널리즘》, 《방송경영의 문제》, 《한국에 있어서의 신문의 탄생과 초기 개화운동》, 수필집 《내 마음의 작은 동네》 등 숱한 명저들은 척박한 한국언론 초창기를 비춘 복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빛날 것일세.

6·25전쟁으로 최빈국이자 황폐 그 자체였을 때부터 전흔(戰痕)의 아픔을 안고 함께 땀 우리들, 110명이 뜻 모아 ‘6·25참전·종군기자모임’을 결성하고 《우리는 이렇게

력 뚜렷한 귀재, 아! 2025년 4월 23일, 향년 92세로 가다니, 60여년을 함께해 온 그대 영정 앞에 서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묵향처럼 그리움이 스며드네. 이승과 저승의 길목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고 다짐했건만, 이제는 불려도 대답 없으니 영원한 이별을 실감하네.

부인(한정희 여사)과 아들 며느리, 딸 넷과 사위, 친손 외손 8명을 남겨두고 고향 마을 옆 문막 충효공원묘원에 잠든 친구여! 사단칠정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편히 영면하시어.

박기병(분회 명예회장)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025.4.25 ~ 2025.5.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김유동(2014-2023)300,000
박교원(2025)30,000 김재홍(2025)30,000
신대남(2025)30,000 박승구(2025)30,000
최동우(2025)30,000

대한언론인회 주요활동

- 언론인 복지·후생·친목
- 언론관계 연구·출판
- 언론상 시상 ■ 언론문화 창달

연회비는 회원의
자존심입니다.

古下 송진우 선생 80주기 추모식



일제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헌한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1890~1945) 탄생 135주년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이 지난 5월 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송진우 선생은 1918년 중앙학교 교장이 되어 도쿄2·8독립운동세력과 협의해 3·1독립선언을 앞장서 기획 조직한 주역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반 옥고를 치른 독립투쟁이력과 1921년 동아일보사장이 되어 25년간 애국애족을 고취한 문화업적을 기려 내셔널프레스클럽에 고인의 아력과 사진을 담은 동판이 헌정돼 있는 언론인이다.

고 국민 곁에서 일제에 맞선 독립투사였다"며 "해방 정국에선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분"이라고 말했다. 고하는 조선어학회가 기초한 한국맞춤법통일안으로 신활자를 제조하여 동아일보신문 제작을 시행함으로써 한글 표기법으로 자리잡게 한 한글보급에도 기여했다. 고하 동아일보사장은 1931년 소실된 아산현충사를 건립했으며 행주산성도 중건했다. 이해에 '민족의 대각성' '대단결' 계몽을 내걸고 신동아도 창간했다. 일제가 패망 직전 4차에 걸쳐 고하에게 정권인수를 교섭했으나 거절했으며 여운형의 건준 협조 요청도 거절하고 임정봉대를 주장했다. 고하는 해방정국에서 한국민주당과 동아일보를 이끌며 이승만을 적극 지원,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다. 1945년 12월30일서거, 1963년 건국훈장이 추서됐다.

고하 서거 80주기 추모식에서는 1930년 동아일보사(사장 송진우)가 만들어 제2의 애국가로 불렸던 <조선의 노래>(작사 이은상·작곡 현재명)를 서혜연 서울대 교수가 불러 80대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문화일보가 5월8일자 20면에 '독립·건국의 주역 고하 송진우 서거80주기'를 기획 특집했다.

동아일보 3·6·8대 사장·주필·고문을 역임한 고하는 청산리전투의 영웅 김좌진장군과 만주독립운동조직에 독립운동자금을 보냈고 이승만 서재필과 독립운동을 협의했으며 조소앙 김구 가족을 돕기도 했다. 김창식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고하는 망명하지 않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신동철 회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65번길 39
금호아파트 602동 1507호

회우 동정

재외동포 언론인 화상 국제심포지엄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사장 박기병·사진)는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건설회관에서 2025 재외동포 언론인 온·오프라인 화상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한준 회우 황해도 '영예 도민상' 수상



유한준 회우는 정부 과천청사 운동장에서 5월 11일 열린 제 59회 황해도 체육대회 겸 제47회 황해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애향사업에 헌신 봉사한 공로로 2025년도 '황해도 영예(榮譽) 도민상'

을 받았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고문 조혜자 여사(故 이 대통령 며느리) 등 6명이 함께 '영예 도민상'을 수상했다.

소재필 회우 SITF 국제관광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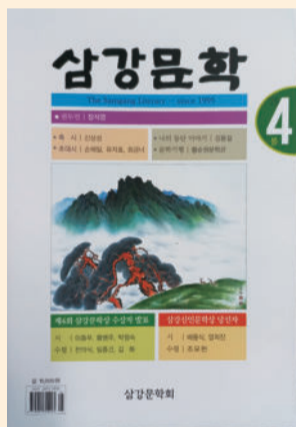


소재필 회우(Travel Press 발행인·분회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는 제1회 SITF 국제관광대상을 수상했다.

서재필기념회 언론문화상 시상

(재)서재필기념회(이사장 이왕준)는 6월18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14회 서재필언론문화상을 시상한다. 수상자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회우가 낸 새책



삼강문학 봄호

순수문학단체 삼강문학회(발행 및 편집인 장석영)의 <삼강문학>제4집 2025 봄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에는 최금녀 유자효 본회회우 등의 초대시와 함께 삼강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을 실었다. 시부문 수상자는 이종우 황병주 박정숙 등 3명. 수필부문에서는 전우식 수필가가 대상, 임종건 김 화 수필가가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했다.

언론가 소식

신문협회 창립68주년 발행인 세미나
신문협회는 6월 12-13일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협회 창립기념 발행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창립68주년(6월 29일)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준비 경과 및 성공 전략,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실현 방안 등에 대해 경주 APEC 추진위원회가 발표한다.

미국 최고권위 보도상인 제109회 풀리처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언론부분상은 모두 15개, 예술부문(출판 음악 공연)은 8개로 총 23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언론 분야 15개 부문의 수상작 중 4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보도였다.

한국일보 제2기 스탠다드자문위원 위촉

한국일보는 지난 5월 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뉴스 보도의 저널리즘적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한 제2기 스탠다드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수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희은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풀리처상도 '트럼프 효과'...4개 부문

풀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지난 5월 5일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위원장 최명우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튼튼하게
탄탄하게
튼튼하게

K.스포츠 크리에이티브

KSPO홍보대사 박세리

체육진흥기금 조성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사업 등을 통한 체육진흥 기금 조성

스포츠복지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체력100, 생활체육 시설 조성 등 지원

스포츠산업 지원



스포츠산업 금융, 스포츠 기업, 일자리 및 창업 등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 사업



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 기념관, 소마미술관, 서울올림픽파크텔 등 운영

체육인재 육성/지원



체육인재 육성 (K-스포츠 에듀),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인 복지 지원



오늘의
 역사는
 담아
 내일은
 그리다

Since 1976

정밀화학 포장 용기 세계일류화 달성
 크로바케미칼은 지난 50년간
 정밀화학 포장 용기 생산에 전념해왔습니다.

 (주)크로바케미칼
 CLOVER CHEMICAL CO.,LTD.
www.cloverchemical.com